

청년생활

4

1963



평양 방직 공장 직포 제 2 초급 민청 단체 민청원들은 매주 정상적으로 혁명 전통 학습을 진행 하고 있다.

촬영 리 종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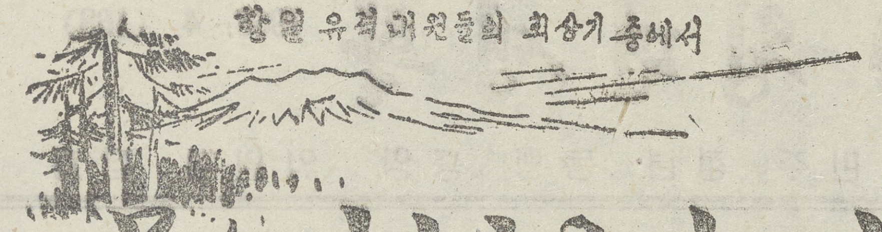
청년생활 1963. 4. (163)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표지 1면: 조국에로 (유화)

항일 유격대원들의 회상기 중에서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전 문섭

1938년 4월 27일 새벽

김 일성 동지께서 친솔하신 우리 6 사 부대들은 적의 중요한 《토벌》 거점의 하나인 림강현 6 도구의 적을 소탕하고 승리의 기세 드높이 귀로에 올랐다.

놈들이 《금성 철벽》으로 자처하던 6 도구가 하루'밤 사이에 녹아 났으니 날이 밝으면 적들도 집요하게 달려 들 것이였다.

발악하는 적들을 소탕하느라고 6 도구를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떠난 우리들이 람의랑 부락 근처에 이른 때는 날이 훤히 밝아 올 무렵이였다.

그런데 이 때 람의랑 부락의 개들이 갑자기 짖어대기 시작했다. 김 일성 동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전 부대를 람의랑 부락 앞산인 라즈거우강 상에 오르라고 지시하시였다. 그리고는 전 부대에 전투 준비를 갖추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주력 부대가 올라 선 산 앞쪽은 갈과 쑥대만이 무성한 밋밋하게 뻗어 내린 구릉 지대였으며 산 뒤쪽은 깎아 세운듯한 절벽 지대였다.

(얼마 더 가면 지형이 유리한데 왜 이런 낮은 산에 오르라고 하실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오를 따라 산에 올랐다.

전 부대가 산에 오르자 그 이께서는 각 련대들이 차지할 전투 위치와 지어는 기관총 좌지까지 친히 제시하시면서 다소 불리한 지형이라도 전투 준비만 잘 하면 능히 적을 타승할 수 있으니 전호를 잘 파라고 하셨다.

지휘부는 고지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휘부가 대원들이 차지한 전투 위치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전호 굴착 작업을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안

심되지 않았다.

지나 온 전투마다에서 항상 우리의 전두에 서 계신 그 이였지만 오늘만은 지휘부의 위치를 좀 더 뒤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 때 대원들의 심정이였다.

그러나 사령관 동지의 의도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시였다. 오히려 대원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지휘부의 전호보다 대원들이 차지할 전호를 더 빨리 먼저 파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전호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작업 형편이며 무기와 위장 상태를 친히 살피시고 오늘 전투에서 더 많은 적을 족쳐야 한다고 대원들을 고무하여 주시는 것이였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와 같이 대원들과 함께 일하시고 고무하여 주시는 그 이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대원들은 변변치 못한 도구를 가지고도 불과 한 시간이 남짓한 동안에 고지의 전 능선을 련결하는 훌륭한 전호를 만들었다.

동녘 하늘에 해'살이 뻗치자 우리가 차지한 산 아래를 굽이 돌아 간 큰 길로 적 기마병 10 여 명이 나타났다.

이 때야 비로소 나의 위구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미 사령관 동지께서는 람의랑 부락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적들이 불원간 아군을 뒤따르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부대를 이 곳에 배치하셨던 것이다.

…적들도 전투에서 패하면 새로운 전술을 탐구해 내리라는 것을 언제든지 잊어서는 안 된다. 옛말에 《경적 필패》라고 한 우리 조상들의 명담이 있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고 적을 과소 평가하며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사령관 동지께서 늘 하시던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나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먼저 나타난 놈이 우리의 사격을 받고 도망치자 이 번에는 100 여 명의 적 보병이 맞은 편 수림 속으로부터 달려 들었다.

이 놈들은 우리 진지에서 700 메터 가량 되는 큰 길역에서부터 산개하여 무성한 쑥 밭 속에 몸을 숨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 왔다. 쑥대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적의 선두는 벌써 산 중턱까지 올라 온 것이 분명하였다.

적들의 상판이 보일락 말락 할 때 사령관께서 주신 사격 명령에 따라 기관총, 보총의 일제 사격이 개시되였다. 전호마다에서 울리는 요란한 총성으로 산 중은 금시에 뒤집힐듯 하였다.

쑥밭 여기 저기에서 적들은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불맞은 개미 무리처럼 흩어져 쑥대를 헤치면서 내빼는 놈들을 겨누어 계속 방아쇠를 당겼다.

적들은 처음부터 강한 타격을 받았으나 계속 새로운 력량을 투입하면서 집요하게 달려 들었다. 전투는 점차 치렬해 졌다.

이럴 때 신입 대원 한 동무가 지휘부로 숨 가삐 달려 왔다.

그는 사령관 동지의 앞으로 다가 서서 자세를 바로 잡으며 지휘부의 좌측 동북 간 릉선에 적 기병 수백 명이 막

달려 든다고 보고를 하였다. 그 곳에는 우리 동무 7~8 명이 배치되였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신입 대원들이였다.

위급한 정황 보고를 받으셨으나 그 이께서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침착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기병들이 많이 달려 든단 말이지 …좋소, 먼저 가오, 내 이제 곧 갈테니 …》 하고 말씀하셨다.

잠시 후 사령관 동지께서는 그 곳으로 떠나셨다. 나도 다른 호위병들과 함께 그 이의 신변을 근심하면서 따라 갔다.

그 곳에 당도하여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 많은 적 기병들이 산 릉선을 뒤덮을 듯한 기세로 올라 오고 있었다.

총을 쏘며, 칼을 휘두르며 달려 드는 꼴이 이만 저만하지 않았다.

적정을 주의 깊이 살피시던 사령관 동지께서는 웃음 어린 시선으로 대원들을 돌아 보시면서 나직이 그러나 힘차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적들이 많이 올라 오니 처음으로 이런 전투에 참가한 신입 대원 동무들은 좀 당황해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다.

적들이 왜 말을 타고 달려 드는가? 그것은 우리가 미처 손 쓸 새 없이 우리 진지를 일거에 차지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저 놈들에게는 불리한 약점이 있다.

우리는 전호에 의지하여 적을 내리쏠 수 있지만 적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또 적들의 기동 속도는 빠르지만 반면에 우리의 사격 목표는 아주 크다.

우리는 우선 말부터 쏴야 한다. 말이 쓰러지면 그 우에 탄 놈도 고꾸라질 것이고 뒤따르던 적들도 앞길이 막혀 한데 몰키게 될터이니 이러한 때 사격을 하면 한 방의 총알도 허실 없이 적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당황할 것도 없거니와 적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질 것이다.…

사령관 동지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기관총수 곁으로 가시여

《어디 내가 한 번 쏴 보기요…》 하고 기관총 옆에 다가 서시였다. 기관총수는 잠시 주춤거렸다. 그 이의 신변이 걱정되여서였다. 그는 기관총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뒤로 물러 서서도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는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 이는 올라 오는 적들을 쭉 훑어 보시면서 천천히 총탁을 어깨로 가져 가시였다.

몸소 기관총을 잡으신 그 이의 곁에 엎드려 총을 더 굳게 잡고 놈들의 저격수가 숨어 들 수 있는 곳들을 살펴 보는 우리의 마음은 한 없이 뜨거웠다.

그 이께서 기관총을 잡으신 것은 이때가 비로소 처음이 아니다.

항일 무장 투쟁의 첫 날부터 나어린 유격대원들을 몸소 키우시고 그들의 앞장에 서시여 뚫고 나간 사선은 그 얼마였으며 적들이 앞뒤로 달려 드는 위급한 순간에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적을 무찌르면서 우리를 승리에로 이끄신

일이 또한 얼마였던가!

어버이의 사랑으로 유격대원들을 보살피시고 교육하며 준엄한 전투의 시련 속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그 이,

바로 그 이께서 지금 조국 땅이 지척에 보이는 이 곳 라자거우장 상의 전호 속에서 또다시 몸소 기관총을 잡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잠긴 나의 온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 올랐으며 그럴수록 그 이의 신변을 더욱 튼튼히 보위해야 한다는 결의가 가슴 그득해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여 드는 적을 쏘아 보며 그 이의 사격 명령을 기다렸다.

그 이께서는 적 기병이 산 중턱에까지 기여 올랐을 때도 침착하게 놈들의 행동을 살피고만 계셨다.

100 메터, 60 메터…

원쑤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 왔다. 사령관 동지께서 잡으신 기관총에서 드디여 세찬 불'길이 뻗어 나갔다.

앞장 선 말부터 고꾸라졌다. 뒤따르던 말들이 앞발을 하늘 높이 쳐들고 맴돌이치자 적들은 삽시간에 한데 몰켰다. 우리는 그 놈들에게 맹사격을 퍼부었다.

말 앞으로 곤두박히는 놈, 말 잔등에서 뒤로 떨어지는 놈, 아우성 소리, 말과 함께 릉선 아래로 구는 놈, 말 울음 소리… 우리의 눈 앞은 원쑤들의 죽음의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그 이께서는 혼란 속에 빠진 적에게 계속 불사격을 가했다. 우리도 쏘고 또 쏘았다.

살기 등등하여 올라 오면 적들은 무리죽음을 당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정신 없이 내뛰는 적들을 보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적을 족치고 나니 기분이 어떤가, 이제는 싸울만 한가… 하고 신입 대원들을 돌아 보시며 웃으시였다.

전투 초소에까지 친히 나오셔 대원들과 함께 싸우시면서 전투적 시범으로 가르쳐 주시는 사령관 동지 앞에서 대원들은 저마다 자신 만만한 대답을 드렸으며 그 이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울 결의를 다시 한 번 굳게 다지였다.

전체 대원들의 사기는 시간이 갈수록 하늘을 찌를듯 높아만 갔다.

우리는 달려 드는 적에게 용기 백배하여 그 때마다 강한 타격을 가했다.

적들은 제놈들의 주검으로 릉선을 뒤덮으면서도 거듭 력량을 보충하며 달려 들었다. 적의 력량도 증가되고 전술도 달라져 정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사령관 동지께서는 이런 속에서도 적의 기도를 예민하게 포착하시고 전투를 지휘하셨다.

중낮쯤 되였을 때 적들은 지휘부 좌측에 위치한 반일 부대 진지에로 몰려 들기 시작했다. 그 곳이 약한 고리라는 것을 적들도 알아 차렸던 것이다.

그 이께서는 여기에 대처하여 곧 지휘부 우측에 있던 8 련대를 그 쪽에 이동시켜 놈들의 기도를 제때에 분쇄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투는 더욱

가렬해졌다. 이렇게 되자 반일 부대 일부 지휘 성원들 중에서는 비겁 분자들이 나타났다.

지어 그들은 퇴각하자고까지 제의해 나섰다. 사실 유격전에서 이처럼 불리한 지형에서 하루 종일 수 많은 적을 대상하여 방어 전투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때 사령관 동지께서는 적이 사방으로 달려 드는 형편에서 퇴각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쳐 달라고 적에게 내여 미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라고 그들을 타이르시면서 적이 달려 든다고 겁내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용감하게 싸워 이 곳을 적들의 무리 죽음터로 만들자고 재차 명령을 내리셨다.

대원들은 그 이의 명령을 받들고 전투에서 더욱 용맹을 떨쳐 자신 있게 반격을 가하여 놈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였다.

적들의 기세는 오후가 되자 현저히 저하되여 갔으나 가렬한 전투는 의연히 계속되였다.

전투 속에서 밝은 새 날이 전투 속에서 다시 저물어 가는 오후 5 시 경이였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적들은 이 기회를 타서 살아 남은 제 놈들을 몽땅 그러 모아 가지고 쑥단을 의지하여 발악적으로 기여 올라 왔다.

온 종일 계속된 가렬한 전투의 마지막 싸움이 다가 오고 있었다.

이 긴장한 시각에 지휘부에서는 힘 있는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이께서도 대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계셨다.

남북 만주 설한풍 휩쓰는 산중에
결심 품고 떠나는 우리 혁명군
천신 만고 모두다 달게 여기며
땀과 눈물 흘린 자 그 얼마냐.

원쑤 격멸에로 부르는 그 노래 소리는 우리의 심장 속에 거센 멸적의 투지를 불러 일으켰다.

지휘부 가까이에 있던 7 련대 동무들이 합류하자 노래 소리는 보다 우렁차게 울렸다.

끓는 피로 맹세한 동지를 잃고서
괴롭고도 모진 싸움 해 나오다가
폭풍바람 떨치는 돌격 소리에
공산주의 승리의 기 펄펄 날린다.

노래 소리는 마침내 전 부대의 합창으로 변하여 온 산중을 흔들며 세차게 울렸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원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으며 겁에 질려 산 너머에 피해 갔던 일부 반일 부대 병사들도 이 노래를 듣고 다시 전호로 달려 왔다.

전호 속에서 사령관 동지와 함께 부른 혁명의 노래—그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었으며 원쑤에게는 전률과 공포, 죽음을 주었다.

이렇듯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대원들을 승리에로 인도하신 그 이의 령도를 따라 우리는 그 후의 간고한 투쟁에서도 항상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처창즈 유격 근거지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



김 길 평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는 전체 인민이 무장하여 온 강토를 난공 불락의 요새로 강화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간고하였던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처창즈 유격 근거지 인민들이 어떻게 영웅적으로 근거지를 고수하였는가를 깊이 인식하는 것은 현 시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1930 년대 전반기 동만 일대에 조선 혁명의 근거지를 창설한 것과 그 곳에 의거하여 전개한 1932년~1934년 간의 항일 무장 투쟁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정치 군사적 타격을 주었다.

동만 혁명 근거지 창설과 수년 간의 항일 무장 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일제는 조선 인민의 항일 무장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그의 기지인 동만 혁명 근거지에 대한 《위공 작전》에 모든 악랄한 방법을 다 적용했다. 일제는 우선 동만 지방에 관동군을 비롯하여 괴뢰 만주국군의 가장 정예 부대라고 하는 정안군과 《조선군》 라남 사단까지 동원하였으며 반동 지주, 예속 자본가들과 주구들로써 소위 특별 부대(위만군에 편입된 군대), 자위단까지 조직하여 《토벌》에 동원시켰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 대한 야수적인 토벌을 감행하면서 한편 근거지—해방 지구를 정치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혁명군과 군중들을 각개 격파하기 위하여 동만 지구에서 악랄한 통치 제도를 실시하였다.

동만 각지에 집단 부락을 설치하고 산재한 부락들을 모조리 불 살랐으며 혁명 군중들에 대한 대중적인 학살을 감행하면서 인민들을 강제로 집단 부락내에 몰아 넣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

들은 유격대를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려 하였다.

이리하여 동만 일대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들에는 헤아릴 수 없는 난관들이 조성되였다. 따라서 적들의 토벌 공세와 관련한 정세의 난국을 타개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조선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섰다.

우선 광활한 지역에 진출하여 적을 반격하여야 하였으며 전략적 필요에 따라 동만 근거지를 해산할 때까지 유격대의 군사 정치 활동에 유리하며 근거지 내의 군중을 보위할 수 있는 일정한 지대를 확보하여야 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 일성 동지께서는 1934년 봄,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을 동남의 동북 방향 다자구 일대와 서남 방향 안도현 일대에 진출시켜 유격 지구를 확장할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처창즈 유격 근거지가 창설되게 되였는바 당시 처창즈는 산간 주민 지대로써 화전민들이 다수 거주하였으며 적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고 수다한 반일 부대들이 활동하고 있던 곳이였다.

안도현 지대에 새로운 유격 지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 지도부는 연길 왕청현 등지에서 활동하던 성원들로써 독립 련대를 편성하였다.

독립 련대는 우선 안도현 대전자에 주둔하고 있는 적을 소탕해야 처창즈에 새로운 근거지를 개척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 조선 인민 혁명군 독립 련대는 반일 부대와의 협동 하에 1934년 6월 대전자를 진격하여 600여 명의 적을 소탕하고 시가를 해방하였다.

대전자 전투의 승리는 조 중 인민들간의 전투적 우의와 친선 단결을 강화하며 이 지방 항일 구국군 부대와의 공동 투쟁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안도현 지방에 진출한 조선 인민 혁명군은 대전자 북방 다무차호를 련결하는 광활한 지대를 장악하였다. 이리하여 처창즈를 중심으로 한 안도 북부 지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을 확보하자 연길현과 화룡현 일대 유격 근거지 내 1,000 여 명의 군중들이 1934년 겨울 이 곳에 집결되였다. 이 군중들은 혁명 렬사의 유가족이거나 혁명군의 가족들이였으며 그 모두가 조직된 군중들이였다.

× ×

적의 통치로부터 벗어 난 이 곳에 혁명 군중들이 집결하자 인민 정권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회 제도를 확립할 것이 필연적인 요구로 제기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처창즈 근거지 인민 혁명 정부를 수립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2 개였는바 그 하나는 연길현 군중을 대표하였으며 하나는 화룡현 군중을 대표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사실상 인민 민주주의 독재 정권이였다.

이 근거지 내에는 인민 혁명 정부와 함께 병공창, 학교, 병원, 피복창 등이 창설되였다.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근거지 내의 조직된 군중과 혁명 정권, 혁명 단체와 기관들을 보위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섰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근거지 인민들을 무장시켜 근거지를 요새화하였다.

처창즈 근거지를 요새화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곤난 앞에서도 굴함 없이 원쑤를 맞받아 싸우는 불요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전체 군중을 무장시키는 문제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이 사업을 기본 임무의 하나로 인정하고 군중 속에서 다방면적인 선전 선동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 사상 사업은 매개 혁명 조직들과 혁명 군인, 당, 정권 기관, 사회 단체 일군들을 비롯하여 주민 속에 포치된 세대 5 호 조장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수행하는 전투적인 과업으로 되였다.

한편 공산주의자들은 근거지 내에 유격대와 인민 정권을 중심으로 자위대, 소년 선봉대, 부녀회, 아동단 조직을 통하여 전체 군중을 무장시켜 인민적인 방위 조직 체계를 확립하였다.

인민적 방위 체계 내에서 유격대와 반일 자위대는 물론 매개 구성 요소들이 근거지의 일정한 지역들에 자기의 전투적 초소를 선정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의 군사부는 자위대, 소선대를 비롯한 전체 군중들에 대한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공격해 오는 적을 격파할 수 있도록 전투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한편 정부의 교양부는 인민들 속에서 성인 교육과 함께 공청원들을 아동단 학교 교원으로 선발 배치하여 아동 교양 사업에 전력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통하여 근거지 내의 인민들은 정치 군사적으로 더욱 각성되였다. 처창즈 근거지가 날로 공고화됨에 따라서 적들은 처창즈 유격 근거지에 공세의 예봉을 돌리였다.

그것은 첫째로, 처창즈 유격 근거지 창설로 말미암아 토벌 작전에 심대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며 둘째로, 처창즈 유격 근거지가 조선에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국내 인민들에게 혁명적 영향력을 신속히 확대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며 세째로, 처창즈 근거지는 동만 유격 근거지 중에서 마지막 근거지였으므로 적들은 이 근거지를 소멸함으로써 혁명의 력량을 대량 소탕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적들은 이 근거지를 소멸하려고 만여 명의 《토벌대》를 동원하여 비행대의 엄호 하에 집요하게 공격을 감행했으며 근거지 주변을 봉쇄하고 근거지 내 군중들을 아사시켜 보려고 발광했다.

이리하여 근거지 내에는 력사가 체험한 일이 드문 간고성이 조성되였다. 적들의 4 면 포위 속에 있는 근거지에는 수량상으로 보나 기술상으로 보나 적에 비할 바 없이 적은 병력 밖에 없었으며 낟알도, 풀도, 소금도 거의 없었다. 해'곡식이 날 때까지 근거지가 이러한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 속에서는 아사자들이 속출하였다. 유격대와 전체 군중들은 기근 속에서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 원쑤와 대전하였다.

처창즈 근거지에 대한 원쑤들의 첫 대규모적인 공세는 1934년 겨울 근거지 창설 초기에 진행되였다. 이 때 5,000 여 명의 적이 공격해 왔는바 근거지 내 유격대와 군중들은 눈 속을 파 헤치고 지난 해의 묵은 풀을 뜯어 식량으로 보충하면서 방위전에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서 결사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적을 격퇴하였다. 그 후 적들은 계속 이 근

거지를 소멸하려고 병력을 증강했는바 1935년 10월에는 10,000 여 명의 《로별대》를 동원하여 포위 공격전을 진행하는 한편 비행대로써 근거지 내의 병영과 주민 가옥들에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 때 근거지 내의 방위 무력은 실로 1 당 100 으로 적을 격파하여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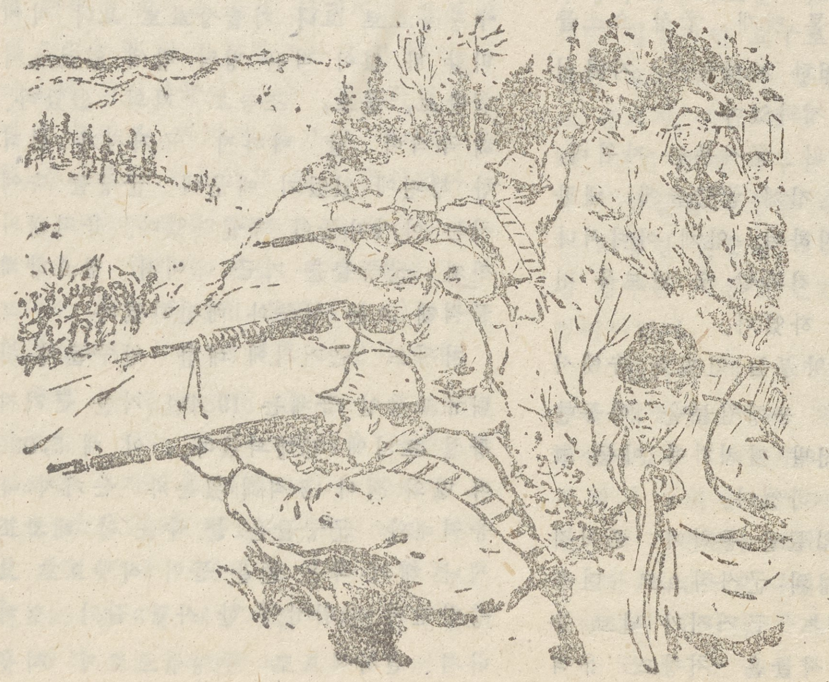
유격대는 탄알이 떨어지면 작탄으로 작탄이 떨어지면 총창과 총탁으로 육탄이 되여 적을 섬멸했다. 이 때 인민들은 유격대와 합세하여 적을 쓰러 눕혔으며 부상자들을 나르고 식사를 보장하는 등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쑤와 싸웠다.

지어 굶어서 걸을 힘이 없는 부녀자들도 물통을 메고 산으로 기여 올라 와 유격대에 물을 공급했으며 아동들은 버섯이나 산'새 알 같은 것을 찾아 내면 자기들은 굶주리면서도 투쟁하는 유격대원들에게 주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단원들은 그 어떠한 곤난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통신 련락을 보장하였으며 굶어 쓰러지면서도 혁명가를 불러 유격대를 고무하였다. 실로 처창즈 내 군민은 일치 단결하여 결사전에 나섬으로써 적을 격멸하고 근거지를 사수하였다.

그들은 물과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데서나 살 수 있으며 혁명적 지조를 지켜 끝까지 투쟁하는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근거지 인민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틀어 잡고 다른 손에는 호미를 들고 생산도 전투라는 것을 인식하고 농업 생산에도 힘써 식량난을 타개하는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농산을 위하여서는 우선 종곡을 확보하는 문제가 급선무로 나섰다. 유격대와 자위대는 적의 집단 부락을 습격하여 피의 대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인민들은 굶어서 사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종곡을 보관하였으며 단합된 힘으로 춘경, 파종, 제초, 추수를 보장했다. 다 자란 보리 밭에 원쑤들이 불을 질러 태워 버렸어도 인민들은 락심하지 않고



또 파종하였다. 인민들은 굶어 움직이지 못했어도 기여 다니면서 곡식을 심고 제초를 했다. 수십 차례 집이 탔어도 그 자리에 또 집을 지었다. 일을 하다가도 일단 적이 공격해 오면 모두가 방위전에 나섰다.

공산주의자들은 원쑤와의 격전과 농산에 군중을 조직 동원하는 한편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군중들에 대한 문화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하여 근거지 내에는 격전이 벌어지고 기근이 휩싸여도 혁명적인 락관주의에 충만된 인민 대중의 우렁찬 노래 소리는 멈춘 일이 없었다.

어느 때 어느 나라 인민들도 이 처창즈 근거지 내 인민들과 같은 고난을 겪어 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근거지 내 군민들은 그 곤난 속에서도 서로 아끼고 격려하며 투쟁의 길에서 항상 승리를 쟁취하였다.

처창즈 근거지 인민들이 이처럼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근거지를 사수할 수 있은 것은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의 정확한 령도가 있었고 인민들이 자기 수중에 주권을 장악한 데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사상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 승리에 대한 신심과 철두철미 적을 증오할 줄 아는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근거지가 요새화된 데 있으며, 유격대에 대한 인민 대중의 사랑과 신뢰가 지극히 두터웠으며 군민이 일치 단결된 데 있다.

이처럼 영웅적으로 고수된 처창즈 유격 근거지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적 필요에 의하여 1935년 9월 자기 사명을 끝마치게 되였다.

× ×

처창즈 유격 근거지 고수를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혁명 력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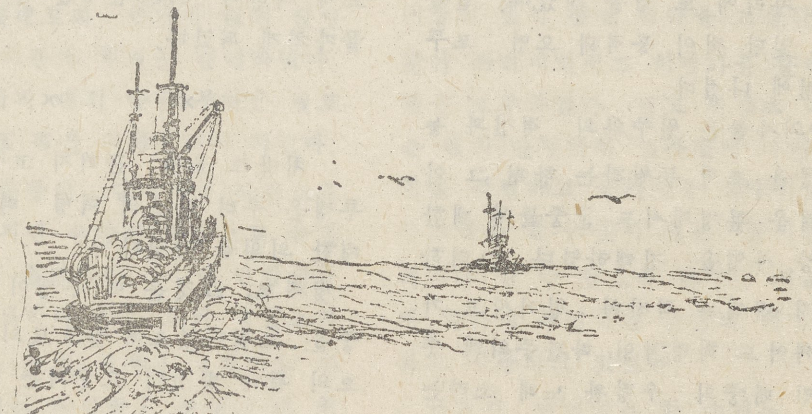
첫째로, 그것은 이 투쟁이 혁명적 군중을 보위하였으며 앞으로의 빨찌산 대오의 확대 발전에 요구되는 수 많은 단련되고 세련된 군사 정치 간부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였다.

둘째로, 인민이 무장하고 근거지가 요새화 됨으로써 어떠한 원쑤도 싸우는 인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세째로, 이 투쟁은 공산주의자들의 고귀한 혁명적 기개와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신념, 그리고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을 유감 없이 시위하였다.

오늘 전체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처창즈 유격 근거지 인민들의 백절불굴의 영웅적인 투쟁 정신을 본받아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고 온 강토를 난공 불락의 혁명적 요새로 철벽시킴으로써 원쑤들의 어떠한 책동도 분쇄하고야 말 것이다.

민청호의《심장》은 힘차게 고동친다



양화 수산 사업소 심해선 민청호 329 호에서 일하는 고 창조 동무는 단시일 내에 배의 심장부인 기관에 정통하고 설비의 보수 점검을 계획적으로 하며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1 년 이상 쓸 수 있는 예비 부속품을 마련함으로써 300 일 이상의 출어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년한 문제

오늘도 심해선 민청호 329 호는 만선기를 휘날리며 그리운 기지 양화항으로 돌아 오고 있었다. 이 때 남달리 더 기뻐하여야 할 선장 주 응민 동무의 얼굴에는 근심이 어려 있었다. 한참 후 그는 무겁게 말을 뗐다.

《그래 기관은 누구에게 맡기고 갈라우?》

그러나 옆에 앉은 기관장은 묵묵히 눈을 아래로 깔고 말이 없었다. 그는 선장의 안타까운 심정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기실 배의 심장인 기관은 300 일 이상의 출어 일수를 보장하는 중요 고리이다.

그런데 기관장은 래일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2 개월 간이나 자리를 뜨게 된다. 더구나 10년 세월을 두고 1 건의 사고 없이 배를 몰던 기관장이 한창 성어기에 떠나게 되니 선장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기관장은 결연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고 창조 동무에게 맡기고 가지요.》

《해 낼가?》

선장은 미타해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고 창조 동무는 당의 부름 따라 바다에 진출하여 이 배에 온지 불과 1 년 반 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보통 저예망선도 3~4년의 경험은 가져야 기관을 제대로 맡아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배나 더 큰 심해선 기관을 어찌 창조 동무와 같이 짧은 년한을 가진 동무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선장의 생각이였다.

《능히 해 낼 겁니다.》

기관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의 이 한마디 말에는 창조 동무의 일 솜씨와 그의 남다른 열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창조 동무는 배에 오른 첫날부터 남달리 열성이 컸고 그의 가슴은 항상 해양국의 청년답게 싸우리라는 결의와 사회주의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바다의 무진장한 부원을 개발한다는 높은 긍지로 출렁이고 있었다.

그는 류달리 자기 일을 사랑하였다. 그러면서 기술 학습에서도 가장 모범이였다. 하루 속히 기관을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준에 오르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기울였고 기관을 다루다가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꼭꼭 수첩에 적어 두었다가는 기관장이 짬이 생기기만 하면 그것을 묻군 하였다. 기망과 기망 사이에 얻을 수 있는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도 그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경험 있는 기관장들을 찾아 다니면서 그들의 경험을 듣기에 열중했고 모든 사고의 원인과 그의 미연 방지 대책을 알아 내기에 애를 썼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창조 동무의 이런 열성은 빠른 시일 내에 기관의 모든 부문을 손'금 보듯 정통하게 하였다.

그가 일을 시작한지 1 년도 못된 어느 날에 있은 일이다. 민청 호는 고기잡이를 끝마치고 기지로 돌아 오고 있었다. 이 때 기관장은 피스톤이 움직이는 소리가 약간 고르롭지 못 하다는 것을 알았다. 오랜 경험을 통해 익숙해진 그의 귀엔 이것이 직감적으로 감촉 됐던 것이다.

기관장은 배가 부두에 닿자 지난 밤을 새우다 싶이 한 고 창조 동무의 휴식을 보장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기관의 사고를 모르는 척하고 배에서 내렸다. 사실 창조 동무의 경험 년한으로 보아 그가 이 결함을 감촉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 가는 척 하였다가 한참 후에 피스톤을 손질하기 위하여 다시 기관실로 되돌아 왔다. 그런데 합숙에 돌아 갔으리라고만 생각했던 창조 동무는 피스톤을 분해해 놓고 그것을 말끔히 손질하고 있지 않는가! 그 역시 피스톤의 고르롭지 못한 소리를 분간해 들을 수 있게끔 벌써 기관에 정통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기관장을 놀라게 한 사실은 한 두가지가 아니였다.

《선장 동무! 대담하게 맡깁시다. 그런 청년들은 10 년도 1 년 맞잡이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의 년한이 어리다고 조금도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도 심장의 고동을 멈출 수 없다》

기관장 없는 기관실에 남게 된 고 창조 동무의 가슴은 두근거리기만 하였

다. 그러나 당의 후비대인 민청원으로써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군 하였다.

련일 계속되는 어로 작업에서 그는 피곤한 기색 한번 보이지 않았다 한 기망이 멀다하고 땅크 부탓시며 노즐 그리고 기관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반복 점검을 했으며 지어는 외부의 자그마한 모타에 이르기까지 꼭꼭 기름칠을 해 주었다.

그는 오직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 관철에서 민청호의 기관을 잠시도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는 높은 책임감으로 자기 가슴을 불태우고 있었다.

이런 나날이 계속되면 어느 날 민청호는 고기'떼를 따라 청진 앞바다로 나가게 되였다. 이 때 그들은 계속 어군 탐지기를 사용하면서 고기를 잡아야 했다. 게다가 야등까지 켜 놓고 일을 하다보니 이중으로 전력을 사용하게 되여 자연 발전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였다. 열을 내고 있는 발전기 옆에서 그는 안절부절하였다. 어군 탐지기를 멈추면 곧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밖에서는 《기망당 8 톤이요! 8 톤!》 하고 환성을 올리는 동무들의 웨침 소리가 들려 왔다.

(당은 한 마리의 고기라도 더 잡을 것을 호소하고 있지 않는가!)

그는 발전기의 곁에 더욱 바싹 다가붙었다. 그는 두껑과 전류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매만지며 열 정도를 《진찰》하였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그의 이마에서는 진땀이 흘러 내렸고 내의까지 땀으로 흠박 젖었다

그럭저럭 그날 작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그는 배가 부두에 도착 하자마자 발전기를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본 동무들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것은 수리소에서도 발전기를 한번 분해했다가 새로 설치하자면 실히 여덟 시간은 걸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청호는 4 시간 후이면 다시 고기'떼를 찾아 떠나야 할 사정이 아닌가? 게다가 아직 발전기에 완전히 익숙하지 못한 그는 다른 배 기관장들에게 하나하나 문의해 가면서 발전기를 정비해야 할 형편이였다.

그러나 발전기 때문에 다음 어로 작업에 지장이 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그는 모든 정력을 쏟아 발전기 정비에 달라 붙었다. 그의 높은 책임성에 감동된 동무들도 힘 자라는껏 도와 나섰다. 그리하여 그는 불과 3 시간 동안에 발전기를 완전히 정비 설치하였다.

실로 애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한 번은 기관을 손질하고 있는데 무엇



인가 타는 냄새가 코를 꾹 찔렀다. 급히 기동을 멈추고 살펴 보니 크랑크 메달이 타고 있었다. 주유기 빠이쁘에 미세한 구열이 간 것을 모르고 지냈던 것이다. 크랑크 메달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였다. 세밀한 부속임으로 자기 기능으로서는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는 마음이 몹시도 저며 들었다.

(배의 심장을 멈추게 하다니!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항일 빨찌산들은 줄칼로 못바늘을 깎아 재봉침 바늘도 만들지 않았는가! 나의 심장이 힘차게 고동치는한 이 배의 심장도 힘차게 고동치게 하리라.)

마음 속에 불'길이 일어 난 그는 크랑크 메달에 달라 붙어 그것을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고심 분투한 30 분 만에 민청호는 다시 고무로운 발동 소리를 내며 쾌속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나날 속에서 그의 기술도 사상도 자라 났다.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그에게는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준비가 되여 있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였다. 민청호는 350 메터나 되는 깊은 심해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로쁘가 다 풀려 나가면서 〈앗차〉 하는 순간 로쁘의 쇠사슬 부분이 무거운 그물의 힘에 당기우면서 설비 모타에 칼날과 같은 홈을 파 놓았다..이 홈을 그 대로 두면 로쁘가 마모되여 끊어지면서 그물까지 바다 속에 잃어 버릴 수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작업을 중지해야 하였다.

이것을 본 창조 동무는 급히 기관실에 뛰여 가더니 새 설비 모타를 들고 나왔고 선원들은 그를 추켜 올리며 기뻐 어쩔줄을 몰랐다.

《이것이 어데서 나겠소.》

선장은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물었다. 창조 동무는 머리를 썩썩 긁으며 말했다.

《예비 부속품 창고에 있던 겁니다.》

기관실 옆에 깨끗하게 설치해 놓은 그의 예비 부속품 창고에는 1 년 간은 실히 쓸 수 있는 모든 부속품들이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예비 부속품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매번 배가 부두에 도착하면 곧 공무 동력부 선반 작업반 정비 작업반 등에 달려 가 자신이 직접 선반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속품들과 없는 부속품들을 깎아서 하나하나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 ×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기관장이 돌아 왔다.

그는 민청호에 오자'바람으로 기관실에 들어 섰다. 기관장은 자기가 없는 동안에도 한건의 사고 없이 어로 작업을 보장했고 기관에는 흠집하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부속품은 완전히 갖추어 졌다.

(이제는 대를 물려 주어야겠군)

이런 생각에 잠긴 기관장의 가슴은 행복에 차 넘치였다.

서로 다정히 바라 보는 그들의 눈'동자에는 당의 10 대 과업을 받들고 물'고기를 더 많이 잡도록 민청호의 《심장》이 쉬임 없어 고루롭고 힘 있게 고동치게 하려다는 굳은 결심이 어려 있었다.

본사 기자 하 만춘



기술혁신의 앞장에 서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설비의 85% 이상을 기계화하였고 금년에는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 관철을 위하여 또다시 공장의 기계화 수준을 98% 이상 높이기 위한 투쟁에 힘 차게 일떠선 북청 철제 일용품 생산 협동 조합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수령의 교시 심장으로 받들고

1961년 4월 6일

이 날은 조합 청년들과 조합원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의 날이였다. 수상 동지께서 친히 이 조합을 찾아 오신 것이다.

수상 동지께서는 조합을 돌아 보시고 지난 기간 조합원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치하하시면서 앞으로 조합이 해 나갈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였다.

특히 수상 동지께서는 지방에서 나오는 파철과 원료들을 가지고 《결침》, 《마이깡》, 《자물'쇠》, 《칼》 등을, 비롯한 철제 일용품들과 《웃장》, 《찬장》 등 질 좋고 모양 고운 목재 가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며 기계화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수상 동지께서 다녀 가신 후 청년들과 조합원들은 한결 같이 수상 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섰다.

그들은 힘을 합쳐 단시일 내에 조합 설비의 85%를 기계화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해 창성 련석 회의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는 그들을 한층 더 고무하였다. 그들은 이 교시를 받들고 조합의 기계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결정적 고리로 되는 압연기를 만들 것을 결의 해 나섰다. 압연기 없이는 조합 기계화 수준도 한 계단 더 높일 수 없고 원료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생산의 정상화도 제품의 질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압연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도 일정한 안이 없었다. 일부 동무들은 그것을 자체로는 만들 수 없으니 구성 방직 기계 공장 같은 큰 공장에 가서 해결해 오는 수 밖에 없다고 했고 또 공무 동력반과 주물반 청년들은 지금까지 기계화를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조합의 기술자들과 전체 조합원들이 힘을 합치면 능히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공무 동력반 현장에서는 주물반 청년들과 동력반 청년들이 모여 민청 회의를 가졌다.

처음 응학 동무가 일어섰다.

《동무들! 나는 우리 힘으로 압연기를 능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00 킬로 능력의 소형 용선로를 그 내경과 밑판을 넓히면 능히 800 킬로의 능력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주물 문제, 감속기 틀로 쓸 《공형판》을 해결할 데 대한 문제, 주강품 치차를 구해 올 문제 등 창발적인 토론들을 많이 하였다.

실로 그들의 심장은 기술 혁신에서 청년들이 선봉에 서라는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반드시 이 과업을 해결하고야 말 결의로 들끓고 있었다.

즉시로 두 작업반의 청년들로 《돌격대》가 조직되였고 그루빠들이 편성되였다. 그들은 이 일을 15 일간에 해 낼 것을 결의해 나섰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낮과 밤을 이어 가며 침식을 모르는 돌격대원들의 투쟁의 며칠이 지나 갔다.

청년들은 전투장에서 떠날 줄 몰랐다. 그들의 가족들도 식사를 날라 오며 일손을 도와 나섰다. 실로 그들에게는 난관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모든 예비들을 동원하여 용선로 개조에 달라 붙었다. 그런데 내화 벽돌이 모자랐다. 그들은 지난 전쟁 때에 무너진 시내의 굴뚝 더미들을 헤쳐 가면서 한 장, 두 장 벽돌을 줏어다 쌓았다.

주물반 내 녀성들은 압연기 기둥이며 밑판을 주물할 수 있는 조형 작업에 달라 붙었다. 그런가 하면 동력반 청년들은 용선로 확대 작업을 적극 도와 나서는 한편 감속기 틀을 만들 《공형판》과 치차를 구하기에 분망했다.

그런데 압연기 기둥의 주물 작업은 성공했으나 밑판을 주물하는 작업에서 그만 오작이 되고 말았다. 오작이 되였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작업장에 퍼졌다. 이 때 동력반 동무들을 비롯한 적지 않은 동무들이 락심하였다. 그것은 다시 용선로를 대 보수하고 밑판을 붓자면 또 며칠이 걸리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이 번에도 그들은 결코 주저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비록 한두 번의 실패가 있다 하여 어찌 크나한 일을 하는데 주저와 동요가 있을 수 있으랴!

주물반 리 응학, 동력반 김 성권, 박 수창, 전 한배 동무들은 지체 없이 돌격대의 앞장에 서서 용선로를 재 보수하는 긴장된 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리하여 로 재 보수 작업을 단 하루 동안에 해치웠다. 그리고 주물반 녀성들은 밑판 붓는 작업에서도 끝내나 오작 없이 성공하였다.

압연기 기둥을 가공할 때 그들 앞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였다. 압연기 기둥을 가공하려고 그것을 프레나 왕복대(테불대) 우에 올려 놓았는데 프레나의 승강대 높이 1 메터 20 센치에 비해 30 센치나 기둥이 더 높아서 바이스로 가공해 낼 수 없었다. 이 때 일부 기술 일'군들은 인젠 할 수 없으니 기둥만은 다른 공장에 가서 깎아 오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면 막대한 시일이 걸릴 것이였다.

《일찌기 룡성 기계 공장 동무들은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8 메터 타닝반도, 3.000 톤 프레스도 만들어 내였소. 우리에게 그러한 충직성과 용감성과 대담성이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소.》 민청원들은 한결 같이 이렇게 들고 일어 났다.

이 때 며칠 동안 침식을 잊다 싶이 하면서 연구에 골몰하던 김 성권 동무가 현장에 달려 나와 말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소? 프레나 승강대

를 뜯어서 기둥 높이만큼 30 센치를 더 올리면 어떨가요?》 모두들이 무릎을 쳤다. 과연 그럴듯한 의견이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프레나 기둥에 진동이 생겨 가공의 정밀성을 보장할 수 없지 않을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허지만 이 문제도 결국은 프레나 기둥에 받침대를 물리는 방법으로 해결되였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프레나 승강대를 올리고 그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투를 가져다 프레나 기둥 량쪽에 용접으로 든든하게 붙여 놓았다. 그리고는 왕복대 우에 기둥을 올려 세우고 바이스를 물린 다음 스위치를 넣었다. 긴장된 눈초리들이 그에 집중되였다. 결국 바이스는 제대로 움직였으며 진동은 없었다. 온 작업장 구내에는 돌격대원들의 기쁨의 환성으로 떠나 갈듯 하였다. 그들은 너무도 기쁜 김에 서로 얼싸 안고 돌아 갔다. 그들은 힘을 합치여 또 하나의 난관을 훌륭히 돌파하였던 것이다.

실로 이런 청년들이 무엇인들 못 해 내겠는가!

동력반 동무들은 감속기 틀로 대용할 수 있는 《공형판》도 구했고 녀선반공 금자 동무와 금주 동무들은 밤과 낮을 이어 가면서 압연기 조립에 소요되는 볼트도 다 깎았다. 이제는 오직 감속기에 필요한 치차 세 개만 해결하면 될판이였다.

모든 동무들이 이 일에 떨쳐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동력 반장 영수 동무의 안해가 저녁 밥을 가지고 조합 현장에 찾아 왔다. 그를 보자 동무들은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 사흘 전에 악성 감기에 걸려 몹시 괴로와하는 영수 동무를 그의 동무들은 억지 공사로 집에 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안해의 말에 의하면 영수 동무는 그 날 밤에 약 구하려 간다고 나간 후 련 사흘 되도록 집에 들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합에 나온 줄만 알고 밥을 가져 왔어요.》 하고 안해는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합 간부들은 밤으로 영수 동무의 행처를 알아 내기 위하여 거리에 나섰다. 밤은 벌써 어두워 오고 있었다. 이 때 누구인가가 《작업 반장이 와요!》 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닌가

모두들 와르르 그 쪽으로 밀려 갔다. 과연 거기에는 영수 동무가 벙글 거리며 서 있었다.

《에이 사람두 원》 하고 동무들이 그를 나무라자

《치차를 구해 왔소》

하고 그는 씽긋 웃었다. 알고 보니 그 사연인즉 이러하였다. 즉 영수 동무는 그 때 동무들의 간절한 권고에 의해 집에 가기는 했으나 마음만은 줄창 압연기 작업 현장에 달려 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끝내 감기도 마다하고 안해까지 속여 가며 련 사흘이나 시내를 비롯한 주변 마을들을 돌아 다니면서 파철 더미를 헤치고 치차를 구해 가지고 온 것이였다.

물론 이런 일은 영수 동무 한 사람에게 한한 일은 아니였다. 조합 당 위원장이며, 민청 위원장이 그들 속에서 함께 밤을 밝혔고 나중엔 가족들까지 떨쳐 나와 그들의 일을 도왔다.

이리하여 그들 청년 돌격대원들은 수상 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자기들이 당 앞에 결의한 기일을 이틀이나 앞당겨 드디여 13 일만에 압연기를 만들어 냈다.

× ×

청년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조합의 면모는 날로 달라져 갔다.

150 여대나 되는 각종 기계들에서 쏟아지는 130 여 종의 제품들…그 중에서도 압연기는 가장 훌륭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이 압연기를 조합원들은 《조합의 심장부》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 이 곳 청년들은 더욱 줄기찬 기술 혁신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적은 부분의 손 로동에 이르기까지 반 기계화하여 금년중에 조합의 로동을 98% 이상 기계화 하기 위해 더욱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본사 기자 김 승 현

국토를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 락원으로 꾸리자

어 윤갑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풍치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하여 맑은 아침의 나라 금수 강산이라 불리우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산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땅 속으로부터 지상은 물론, 수풀 속에까지 인간 생활에 아주 유익한 자원들이 무진장하다.

우리 나라는 실로 하나의 천연적인 공원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자연 부원으로 가득찬 보물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하에는 철, 석탄을 비롯해서 금 은에 이르기까지 인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여 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가리켜 《광물의 표본》 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당한 말이다.

또한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림 속에는 다종다양한 짐승과 새들이 수많이 살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870 여종의 동물이 살고 있다. 그 중 85 종이 특산종이며 익조만 하여도 180 여종이나 된다.

우리 나라의 맑고 맑은 강과 호수는 또 어떠한가!

압록강, 두만강을 비롯한 수많은 크고 작은 강하천과 호수는 사람들의 음료수로는 물론 전기를 일쿠고 운수, 관개용수로, 공업용수로 쓰이며, 자연 풍치를 돋우고 우리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한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강 하천들에는 송어, 칠색 송어, 연어, 붕어, 잉어, 산천어, 뱀장어 등 수 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다.

삼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는 또한 수산 자원이 많고 고기의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무려 410 여 종이나 된다) 세계에 그 이름이 높다. 우리는 이 바다에서 매년 수십 만 톤의 고기를 잡아 우리의 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고 비가 많이 옴으로 식물계는 더욱 다양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3,600 여 종의 식물이 있다.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목재용 식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노박덩굴, 닥나무, 포플라 등 천을 짜는 원료를 주는 나무가 무진장 있으며 분지씨, 호도, 잣, 가래 등 고급 식용유를 짜는 유지용 식물이 또한 많다. 훌륭한 향료를 만드는 해당화, 산초나무, 라일라크, 생강나무, 동백나무 등이 있으며 80 여 종의 염료 식물도 있다. 산에는 머루, 다래, 들쭉 등 100 여 종의 야생 과실들이 무르익으며 세계에 그 이름

높은 산삼을 비롯하여 대황, 왕대황 등 700 여 종의 귀중한 약초가 자라고 있다. 송이, 참나무 버섯 등 200 여 종의 맛좋은 버섯들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훌륭히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아름답고 풍부한 우리 나라 자연을 더 훌륭히 더 아름답게 가꾸고 잘 리용한다면 우리 인민은 천하 진미를 다 얻을 수 있으며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실로 삼천리 강토에 생을 받은 것이야말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우리의 조국—삼천리 금수 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는 것은 고상한 애국적 임무로 된다.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이 아름다운 국토를 무한히 사랑하였으며 한 그루의 나무, 한 줌의 흙, 한 마리의 새, 짐승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자래웠으며 인민들은 이것을 고상한 애국적 품성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국로와 자연은 지난 날 지주, 자본가들이 근로 인민들을 착취하던 사회에서는 진실로 인민의 향유물로 되지 못 하고 지배 계급의 략탈의 대상으로, 부화한 생활의 리용물로 되였다. 더우기 일제의 장구한 통치 기간에 국토는 놈들에 의하여 여지 없이 파괴 유린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항일 빨찌산들은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고, 아름다운 조국 강토를 원쑤들의 파괴, 유린으로부터 보위하며 우리 나라를 착취없고 압박없는 사회주의 락원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피흘리며 싸웠다.

김 일성 동지는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벌써 조국 건설의 장래 전망을 내다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 좋고 물맑은 우리 조국땅 우에 착취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종국적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회상기 1 권 18 페지)

수상 동지의 이 원대한 구상은 해방 후 인민이 주권을 틀어쥔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현되고 있다.

당과 정부는 해방 직후부터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을 조국 강토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면서 산좋고 물 맑은 우리 나라를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는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강토는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하여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은 미제 침략자들이 도발한 전쟁에서 원쑤를 굴복시키고 이 아름답고 풍부한 우리의 강토와 우리 인민의 주권을 피로써 사수하였다.

전후 인민들과 청년들은 원쑤를 소멸한 그 기세로 높은 애국심을 발휘하여 전쟁에서 그렇게도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국토를 급속히 복구 정비하였다.

전 인민적 운동으로 식수 조림 사업이 진행되여 80 여만 정보나 되는 광활한 면적에 수억 본의 나무를 심었으며 토지를 정리하고 물고기를 보호 증식시킬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도로, 항만 건설과 대규모의 관개 공사, 치산치수 사업을 전개하였고 야산과 부락에 10만 정보의 저수원을 만들었으며 뽕나무를 수많이 심었다.

지난 날 땅을 잃었던 우리의 국토는

로동당 시대, 천리마 시대에 와서 비로소 새로운 면모로 일신되고 사회주의 락원으로 그의 광채를 빛내이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써 만족할 수 없다.

사회주의 건설의 결정적 단계에 들어선 오늘 우리 앞에는 우리의 금수 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으로 건설할 중대하고 영예로운 혁명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는 지난해 11월 20일에 국로 건설 사업과 그의 관리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지금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국토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한 원대한 전망 계획을 작성하는 조사 사업, 계획 작성 사업들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으며 당면한 건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청년들은 조국의 한 줌의 흙, 한 줌의 풀, 한 포기 나무도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그를 침해하는 원쑤들을 반대하여 목숨 바쳐 싸운 항일 빨찌산의 고매한 애국주의 정신을 본받아 국토 건설 사업에서도 항상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인민과 전체 청년들은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과 자기의 향토를 사랑하여야 하며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락원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우선 국토 건설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국토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를 훌륭히 건설한다는 것은 오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숭고한 과업이다.

우리가 산림과 도로, 항만, 강하천을 우리 나라의 장래 발전에 적응하게 규모있게 꾸리며 더 많은 자연 부원을 조성한다면 물질적 부는 더 증대될 것이며 후손 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터전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것만큼 먹을 것, 입을 것을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도 공산주의 새 세대들이 사는데 적응하도록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이것은 특히 조국의 미래 주인공들인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고상한 애국적 임무로 공산주의적 생활 도덕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국토 건설에 대한 우리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애국적 열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은 국토 건설 사업에도 모범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문제는 국토 건설에 대한 전망성 있는 계획 수립과 그것을 질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다.

수상 동지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국로 건설 계획은 적어도 10년~20년, 30년~50년의 앞을 내다 보는 원대한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적이며 전반적인 국토 건설 계획은 주관적인 의도나 추상적인 재료로서는 작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의 연구 사업과 함께 광범한 인민들과 청년들의 건설적인 의견들이 종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국토 건설 사업에서 그 질을 보장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제방

을 쌓아도 견고하게 질적으로 하며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여도 튼튼하고 아름답게 하여야 하며 조국의 먼 장래를 예견하고 정성을 드려야 한다.

당면하게 국토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산림을 특화하고 그것을 정성들여 가꾸며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는 것이다.

당은 7개년 계획 기간에 50만 정보의 경제림을 조성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에 근거하여 이미 수십만 정보의 경제림을 비롯한 삼림들이 새로 조성되였다. 청년들은 록음이 우거진 조국의 삼림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동원되는 동시에 심은 나무를 정성들여 가꾸며 기관, 기업소, 협동 농장들의 담당림의 비배 관리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며 송충을 구제하며 산'불을 방지하고 삼림에 대한 란도벌 현상과 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강하천에 대한 건설과 그의 보호 관리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홍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며 물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는 사업에 적극 동원되여야 한다.

도로는 나라의 동맥으로써 인민 경제의 수송을 보장하는 기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문화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때문에 도로를 일상적으로 보수 정리하며 교량, 암거, 수통, 석축, 옹벽 등을 보수함으로써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도로수를 질서정연하게 잘 조성하여야 한다.

토지를 보호 관리하는 문제는 국토 관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농업 용 토지, 도시 토지, 삼림 토지를 비롯하여 토지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무원칙하게 농업용 토지에 주택 또는 기본 건설을 진행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 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유용 동식물의 보호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며 창성 련석 회의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 정신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산에 산과실과 유용한 식물을 광범히 조성함으로써 말 그 대로 《황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 놓은 국토를 적극 애호하고 그 관리 사업을 주인답게 하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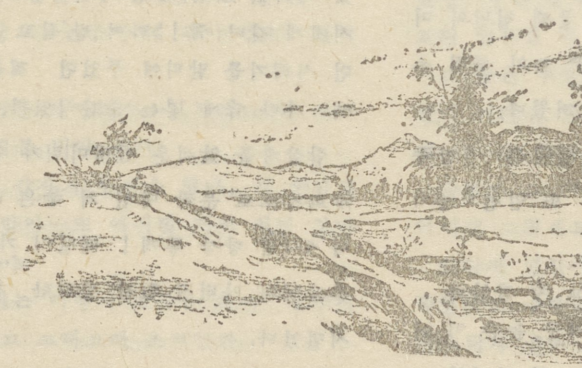
국토를 사랑하는 것은 사회주의 애국주의의 구체적 표현이다.

항일의 혁명 전통으로 훈련된 우리 청년들은 항일 투사들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국토를 아끼고 사랑하는 고상한 애국주의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산, 삼림, 강, 하천, 바다, 항만, 철도, 도로 및 일체 국가 시설물들을 백방으로 애호 관리하며 동식물들을 보호 증식하는 데 자각적으로 동원되여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아끼고 사랑하며, 공동 시설물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일상적 관심을 돌리며 극히 적은 일이지만 도로수가 넘어졌거나 때뚫어져서 보기 흉할 때에는 그것을 바로 잡아 줄 줄 아는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국토 건설과 그의 관리 사업을 개선하고 국토를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그를 보호함으로써 우리 조국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으로 꾸리는 사업에서 높은 애국적 열성을 남김 없이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부모들이 걸어 온 고난의 력사를 잊지 말자

《연자 방아'간집》이야기



김 기 현

나는 얼마 전에 앞 뒤'집에서 함께 자라난 친우인 류 창선 동무의 어머니를 평양에서 만났다.

우리는 18 년만에 처음 만난지라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네 말임마! 지난 해 그 연자머 자리로 새집 들이를 하였네…알곡은 50 여 가마니, 현금은 1,100 원이나 분배를 받았지! 지금이야 당과 수상님의 보살핌으로 근심 걱정일랑 있겠나…》하며 말하는 어머니의 눈언저리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바로 이 어머니가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연자 방아'간 집》의 어머니 강씨이다.

× ×

마을 한복판에는 은률, 송화, 은천 일대의 적지 않은 토지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 넣은 번대머리 지주 정 선렬이란 놈이 살고 있었다.

그 놈의 손아귀에는 4 명의 행랑 어멈과 장끌이 실한 6 명의 남정들이 머슴으로 얽매여 고역을 겪고 있었다.

바로 류 계남(강씨 어머니의 남편) 아버지도 머슴들 중 한 사람이였고 시아버지가 가져다 쓴 장리쌀 수수 서 말에 강씨 어머니도 말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그 놈의 부엌데기로 일하였다.

계남 아버지가 머슴으로 스물 한 해를 넘기던 11월 어느 날.

어머니는 헐벗은 어린애들을 데리고 행랑에서 연자 방아'간으로 쫓겨 나고 말았다. 그것은 다음의 일이 있은 뒤였다.

…한 번은 어머니가 주인집 요강을 쏟으러 나가느라고 어린 창녀(3세)를 돌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아궁 앞에 쪼그리고 앉았던 창녀가 마루로 발랑발랑 기여 올라 가 고양이(지주 놈은 두 마리의 고양이를 길렀다)가 먹고 있

는 밥 그릇을 보자 《엄마 밥！밥！》하며 그릇에 손을 내밀었다. 고양이는 이밥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머슴이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 집 고양이보다도 못 여기는 지주 녀편네가 이것을 보자 《요놈의 계집애》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창녀를 발'길로 걷어 차 마루 밑으로 굴렸다.

창녀의 어머니의 가슴은 쓰리였다. 그렇지 않아도 맏아들 창수를 지주의 둘째 첩년의 머슴으로, 둘째 아들 창도를 지주 놈의 큰집 소먹이로 내보낸 것만 해도 한스러웠다.

게다가 두 아들을 내놓고도 헐벗은 올망졸망한 오 남매가 달려 있는데 또 임신 중이니…

허나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꾹 참았다.

그런 후 욕심이 그지없는 지주 놈은 이 어린것들에게 밥 찌꺼기나마 주는 게 아까와 그들을 더 굶어 먹으려고 흉계를 꾸몄던 것이다.

강씨를 부엌에서 연자 방아'간으로 내몰면 정미소에 주는 삯전을 주지 않으니 좋고 연자 방아'간에서는 공짜로 마음 대로 쌀을 찧으니 꿩먹고 알 먹자는 것이였다.

그 어느 날 번대머리는 《행랑에서 애새끼들을 데리고 딩구느니보다 좋은 수가 있네. 동네 연자'간을 맡아 보게! 한 말 찧는데 한 되씩만 해도…》하면서 강씨에게 선심이라도 쓰는듯이 입을 헤벌죽거렸다.

번대머리 놈의 리'속과 심'보를 알리 없는 온 가족은 행여나 하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돌을 주어 모아 방아'간 기둥에 의지하여 돌담을 쌓고 구들'장을 놓아 방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당장 입에 풀칠할 것이 없었다.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여 난 강씨 어머니는 —당장 아침 끼니가 없으니 어떻게 하노—하고 속으로 근심하면서 남편에게 《…하다 못해 양주장에서 모주 찌꺼기라도…》하고는 그만 저고리 고름으로 눈물을 훔쳤다.

《눈물은 왜 짜노! 그래도 이랑이 고랑되고 고랑이 이랑될 때가 있겠지?！…》

어느새 귀'속 말에 잠겨서 깨여난 어린애들이 《밥 밥…》하며 발버둥을 쳤다.

《에이, 이 놈의 세상을…》이렇게 원한과 증오에 찬 말과 함께 아버지는 담배를 붙여 물고 밖으로 나가 버리고 말았다.

강씨가 가을 김치를 할 때 행랑 어멈들이 못 미더워 지켜 섰던 주인 녀편네가 《이건 돼지에게 갖다 줘!》하며 발'길로 툭툭 차 먼지 던 시래기를 말리여 두었던 것을 한 줌 꺼내여 가마 속에 넣는 순간이였다.

삽살개를 앞세운 번대머리가 인기척도 없이 개화장으로 문짝 대신 쳐 놓은 나래를 제끼더니 《이걸 당장 찧게! 래일이 가다오까 순사부장님의 아버지 환갑 잔치란 말이야!》하고 지껄였다.

《…그래도 뭘 좀 요기를 해야지요.》

강씨는 하도 어이가 없어 이렇게 한마디 쏘아 붙였다.

《에…이른 새벽부터 재수 없이 방정을 떨면 못 써, 먹을 것은 다 먹으면서도 괜히…》

《여보소, 그건 배추 시래기외다…》

《그렇다면 마음 대로 해 보게…후'날 후하게 보아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그래도 어린 것들을 생각해서…》하고는 달구지를 몰고 온 머슴에게 짐을 부리우라고 호령을 치고 사라지고 말았다.

어머니는 당장에 번대머리의 멱통을 거머쥐고 료정을 내고 싶으나 남편과 어린 것들을 생각하여 올리 미는 울화를 꾹 참았다.

세째 아들 창선이는 당나귀를 몰고 강씨는 연자 망'돌이 굴어 가는 뒤를 따라 가며 하얀 입쌀을 뒤젓기도 하고 키질도 하며 일'손을 다그쳤다.

어린애들이 《엄마 나 밥!》하며 서로가 졸라대기 시작하였다.

《가만 있거라, 이제 방아 찧어 송편해 줄라옹…》

이 때였다.

《…송편이고 뭐고 좀 빨랑빨랑해, 벌써 한낮이나 되였는데…》이 소리에 놀라 강씨가 뒤를 돌아 보니 여우 같은 지주 녀편네가 어느새에 와서 지켜 서 노려 보고 있었다.

일'손은 저녁녘이 되여서야 떨어졌다.

그러나 여우 같은 지주 녀편네는 쌀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달구지에 걷어 싣는 것이였다.

《여보소, 다문 얼마라도…》 하고 소리 치며 강씨는 달구지를 막아 섰다.

《원 저년이 갑자기 환장을 했나, 제 주인집 것도 삯전을 받아…또 여지껏 거저 먹인 것만 해도 그런데…》

지주 녀편네는 이렇게 호통을 치며 달구지를 빨리 몰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번대머리의 방아'감은 매일처럼 들이밀렸다. 그러나 번대머리가 말끔한 말로《한 말 찧는데 한 되씩만 받아도 어떻게 되겠는가.》고 하던 그 《삯》 쌀은 한 되도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강씨네 가정에 이보다 더 큰 불행이 닥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 했었다.

이른 아침 창선은 마구'간으로 당나귀를 보러 가고 창애가 어머니를 도와 한 알 두 알 주어 모은 쌀알을 넣고 푸성귀로 죽을 끓이고 있을 때였다.

《돼지새끼》란 놈이 (지주의 둘째 아들 놈의 별명) 무슨 냄새라도 맡은 듯이 코'노래를 부르며 달음질 쳐 왔다.

그 놈은 푸성귀에 섞인 입쌀알을 보더니《입쌀이 어디서 났어, 우리 햅 도적질했지.…》하며 야단을 쳤다.

속담에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제 애비, 에미를 닮았는지…

엎친데 덮친다고 이 때《어머니, 당나귀가 죽었어요…》하는 마구'간에 나갔던 창선이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강씨는 눈앞이 아찔해짐을 느꼈다. 사실 변변히 먹이지도 못하고 매일 같이 밤과 낮을 이어 연자망을 돌리고 나니 말 못 하는 동물도 고역에 못 이겨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독사 눈을 하여 가지고 창애가 휘젓는 가마에 눈총을 팔던《돼지 재끼》 놈이 《우리 당나귀가？—네가 죽였지…》 하고 고함을 지르며 자기 집으로 줄달음쳤다.

얼마 후 가다오까라는 순사부장과 원 순사(누이를 경찰 부장의 첩으로 주고 순사가 됨) 놈이 달려 들었다. 번대머리는 야스가와라는 면장 놈과 함께 경찰놈과 짜고 들어 끝내 나어린 창애를 《쌀도적》이란 루명을 씌워《당나귀 값》으로 순덕관이라는 술집에 팔아 먹고 말았다.

창수가 누이 동생이 술집

에 팔렸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설날 저녁이였다.

창수의 가슴에서는 불이 일였다.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창수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주 놈이 꿩 사냥을 갔을 때였다. 지주 놈은 빈번히 둘째 첩년과 함께 몰이'군을 끌고 꿩잡이를 하군 하였다.

《창수야, 넌 만석일 따라 가며 놀봐라. 한 마리도 놓치서는 안 돼…》하고 지주 놈은 창수에게 훈계하였다.

《네!》하고 대답한 창수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음침한 산 중턱에 이르자《돼지새끼》를 죽도록 때려댔다.

이 날 밤 창수는 해산 후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 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전 도망쳐요. 창선아, 어머니와 그리고 창렬이, 창숙, 창…너…》 하고는 황급히 나가 버렸다.

강씨는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목이 메여 한 마디의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갓 낳은 어린애만 끌어 당기며 눈물만 흠치고 있었다.

그 후 창수가 《돼지새끼》를 때리고 도망친 것이 큰 《죄》가 되여 계남 아버이는 일본 놈 경찰에 끌려 가 3년이라는 징역살이를 하게 되였다.

그리고 창도는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 갔다.

정말 듣기만 하여도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눈에서 불이 일어 났다.

창도가 《어머니 편안히 계서요…》하고 뒤를 바라 보며 《경방단》들의 감시 밑에 자동차에 실려 떠나 가던 날 강씨는 방아'간에서나마 또 쫓겨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강씨가 어떻게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지나 왔겠는가 하는 것은 더 적지 말기로 하자.

다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한지에 나앉은 강씨 어멈에게는 젖이 나오지 않아 어린애는 굶어 죽고 나어린 창렬이는 양주 공장주에게, 창숙이는 돌짱피(팔자 수염이라 하여 마을에서는 이렇게 불렀다)라는 또 청산 지주 놈에게 팔리여 가고 말았다. 창선은 학교 소사로, 강씨 어멈은 마을의 거지들 중 한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다.

착취와 억압, 기아와 굴욕에서 신음한 것이 어찌 강씨 어머니 한 사람에게만 한하랴. 우리의 부모 형제가 모두다 그런 고역 속에서 살아 왔다.

땅 없고 집 없던 우리의 부모들은 사랑하는 귀중한 어린애도 빚 값으로 빼앗기군 했다.

지주란 얼마나 잔악하고 교활한 놈인가?

새 봄이 도래하였다. 해방이 되였던 것이다.

동북으로 행처를 감추었던 창수도, 《징용》에 끌려 갔던 창도도 그리고 계남 아바이로, 팔려 갔던 창애와 창숙이…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 들었다.

행복과 기쁨의 꽃은 활짝 피여 나기 시작하였다.

인민 정권은 그들에게 옥답인 외수렴의 논밭을 7,000 여 평이나 분여하였고 지주에게서 몰수한 집과 가장집물들을 넘겨 주었다.

온 가족은 떨쳐 나서 조국 건설에 정력을 아낌 없이 바쳤다.

나라의 주인으로 된 계남 아바이는 모범 농민으로, 리 농민 동맹 위원장으로, 강씨는 녀맹 일'군으로 사업하였다.

창수와 창도, 창선이는 다시 과거와 같은 쓰라린 생활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들에게 배움과 자유, 행복을 안겨 준 당과 조국을 외래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총가목을 억세게 틀어 잡고 조국 보위 초소에 나섰다.



자본주의의 운명 (1)

김 정남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력사 무대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날카로운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력사 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투쟁이다.

그러면 이 투쟁의 결말은 어떠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오직 하나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자기 립장에서 대답할 것은 사실이다.

독점 자본가들은 《태연히》 설교한다.
—자본주의란 《번영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그 제도는 《영원한》 것이라고, 물론 이것은 그자들의 희망이다.

우리는 말한다.—자본주의는 멸망할 것이며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미국 대통령 케네디도 침울하게 지껄인 바가 있다.—《이 두 진영간의 투쟁의 결과는 확연치 않다.》고, 그러면 과연 확연치 않은가? 도대체 무엇이 확연치 않단 말인가?

우리는 이제 이 투쟁의 결과에 대하여 확연한 대답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물론 한 마디로가 아니라 더 체계적으로 말할 것이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그가 향리 부락의 모 주막집 비좁은 방에서 기거하는 가족들을 찾아 낸 것은 며칠 후였다. 그런데 가족들을 만난 그에게는 기쁨보다도 설움이 앞섰다…

길수가 《국군》에 끌려 나간 후 그의 아버지는 오래 동안 중로동과 영양 실조 때문에 병들게 되였다.

…오두막집도 팔게 되고 빚은 늘어만 갔다. 겨우 얼마간의 동량을 주어 립암 부락에서 세'방을 얻었으나 이것도 기한이 되자 돈 밖에 모르는 집 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받고 방을 넘겨 주었다.…그들에게 이제는 류랑 걸식할 신세만이 남았다.…

배 고파 우는 어린 동생, 병석에서 약 한 첩 쓰지 못 하고 신음하는 아버지, 한탄만 하고 앉아 있는 어머니…

—남조선 신문 《전남 일보》는 퇴 륙군 제 1 통신단 63 운영 대대 3 중대 소속 상사 윤길수가 고향인 광주에 들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로동자 가정의 모진 생활고를 엿볼 수 있다.

직업을 가진 로동자들조차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데 수백만의 실업자들의 생활에 대해서야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농촌을 실지로 답사한 남조선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백사지 부락에서는 60 호의 농가 중 《조반 석죽이나마 굴뚝에서 연기를 올리는 집은 세 집 뿐》이라는 비참한 형편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통한 사실들을 오늘 남조선의 어디를 가나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혹시 《인간 생지옥》인 남조선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였고 《제일 문명》하다고 하는 미국을 들어 보자.

미국의 도시 마스키콘, 여기에 챨스 페러라는 로동자가 산다. 그는 지난 겨울에《나를 감옥으로 이사시켜 주시오.》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아니, 도적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닌, 그렇다고 정신병 환자도 아닌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감옥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한단 말인가?

리유는 이러하다. 그는 얼마 전에 일터를 잃었으며 살던 집에서마저 쫓겨 났다.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는 그는 추위와 굶주림에 견딜 수 없게 되였다. 그런데 감옥엘 간다면 눈'바람을 막을 수는 있을 것이고 《콩밥이나마》(우리 말로 한다면)차례질 것이 아닌가.

로스안젤스에서는 한 로동자가 처와 4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을 못 먹고 지내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의 생명을 끊었다.—《생명 보험》이나 찾게 된다면 가족들은 또 얼마쯤 살아 나갈 수 있을가 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뼈가 휘고 손발이 닳도록 일하는 사람들의 처지는 바로 이러하다.

그러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안히 놀고 먹는 자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미국 8 대 재벌의 하나인 듀퐁은 화려한 주택과 24 개의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값은 실로 1억 5,000만 딸라에 해당한다.

그 자들이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가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미국의 《자동차 대왕》 헨리 포드는 작년 6월에 만 18 세 나는 딸을 《사교계》에 소개하기 위하여 큰 연회를 차렸는데 이 연회비에만도 22만 5,000 딸라나 소비하였다.

이 연회를 차리기 위하여 불란서로부터 설계가를 초청하였으며, 무도장과 정각을 장식한 장미꽃만 해도 2만 딸라어치나 된다.

그런 일이 있은 한 달 후 멜론 재벌의 두목 멜론이라는 자는 포드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큰 《사교 연회》를 벌렸다. 그는 18 세 나는 자기 양딸을 《사교계》에 소개하기 위하여 1백만 딸라의 거액을 들였던 것이다.…

실로 해괴망측한 일이다.

자기 손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자들은 돈을 물 쓰듯이 하면서 거들거리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직업을 구하려고 별의별 애를 다 쓰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매일 매일 기진맥진하도록 부림을 당하고 있으며 두세 사람 분의 일을 하도록 강요 당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다른 편에서는 밀 값을 올리기 위하여 그것을 연료 대신에 기관차에 처넣어 불태우고 있다.

자본가와 그 앞잡이들이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는 사회, 소위《번영하는 사회》—자본주의 사회란 바로 이러한 사회이다.

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인가?

원인은 어디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해괴망측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게 되는 모든 저주로운 현상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생산 수단을 자본가(지주)들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살아 나가기 위하여서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 내야 하며 물건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서는 생산 수단이 있어야 한다. 례컨대 천을 짜기 위하여서는 천 짜는 기계와 솜이 있어야 하며 공장이 있어야 한다. 또 곡식을 얻기 위하여서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우선 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생산 수단(공장, 광산, 기계, 토지 등등)을 자본가(지주)들이 독차지하고 있으며 로동자들에게는 맨주먹 밖에 없다.(또 빈농민들에게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생산 수단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자본가에게 품을 팔고 마소와 같이 부림을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죽도록 일을 하고도 생산물의 거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생산 수단을 독차지한 자본가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로동자들이 생산한 물건을 빼앗아 호화롭게 산다.

생산 수단을 많이 가진 자일수록 보다 많은 리윤을 짜 낼 수 있으며 더욱 큰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벼슬 자리도 살 수 있거니와 관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호령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량심도, 명예도, 사랑도 모든 것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여기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모으기 위하여 물건을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돈'벌이를 하는 데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돈'벌이를 위해서는 협잡은 물론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경제 학자의 다음과 같은 비유를 상기할 수 있다.《자연이 진공을(眞空) 두려워 하는듯이 자본은 리윤이 없거나 또는 리윤이 극히 적은 것을 두려워 한다. 상당한 리윤만 있다면 자본은 과감해진다. 10 퍼센트의 리윤이 보장된다면 자본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20퍼센트의 리윤이라면 자본은 활기를 띠며 50퍼센트이라면 적극적으로 대담해지며, 100퍼센트이라면 인간의 법을 모두 유린하며 300퍼센트이라면 자본에게는 단두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범하지 않는 범죄는 없다.》(칼 맑스 자본론 1 권 2 분책 530 페지 참조)

그러니 자본가들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로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임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주려고 악착하게 날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또 리득이 있으면 로동자들을 고용하고 리득이 적을 때에는 헌신짝처럼 내던지며 어린 애들이 젖이 없어서 말라 죽어 가도 우유 값을 올리려고 우유를 강물에 처넣으면서도 량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례사로운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보게 되는 모든 해괴망측한 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현상들의 원인은 중요한 생산 수단을 자본가들이 독차지한 데 있으며 따라서 그 사회 제도가 글러 먹은 데 있다고.

어디로 나아가는가?

자본주의 사회에도 도대체 발전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물론 있다. 자본주의 사회 역시

발전한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살림이 펴이고 모든 것이 더 나아져야 할 터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생산이 늘어 갈수록 근로자들은 더 고통스럽게 되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민들에게는 더욱 큰 불행이 닥쳐 온다.

과연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여기에 한 자본가가 있다고 하자.

그도 다른 모든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는가를 생각한다. 그리하여 더 능률이 나는 기계를 사 들이며 공장 시설을 확장한다. 그리고 리익이 많이 나는 상품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많이 만들어 낸다.

이 자본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자본가들도 그렇게 한다. 그들은 서로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미칠듯이 경쟁한다.

그런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사회에서 자기가 만들어 내는 상품이 얼마나 필요하며 다른 자본가들은 그런 상품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덮어 놓고 많이 만들어 내는 수 밖에 없는데, 그 리유는 적게 만들어 내는 자본가는 경쟁에서 지게 되며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에는 점점 더 많은 상품이 나타나게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상품을 사야 할 사람들은 대부분이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입에 풀칠하기조차 곤난한 형편이므로 꼭 필요한 상품조차도 다 살 수가 없다.

그리하여 물건은 점점 더 팔리지 않게 되며 자본가들의 창고에는 상품이 가득 쌓인다.

자본가들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더 생산할 필요가 없는만큼 공장문을 닫는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 공황이라고 부르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되풀이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보게 되는 무서운 혼란이다.



공장이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상점들이 파산되고 은행도 영업할 수 없게 되며 로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쫓겨 난다. 마치 무서운 전염병이 만연될 때처럼 모든 거래가 끊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로동자들, 근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곡식을 《너무 많이》 생산하였기 때문에 굶주려야 하며 천을 《지나치게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헐벗어야 하며, 석탄을 《필요 이상》 캐 냈기 때문에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야 하며 얼어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더욱 발전한다. 마치 미치광이가 달음질을 치는 것처럼 공황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뛰쳐 나와 [illegible]달리며 가시덤불 언덕을 네발 걸음으로 헤비며 기여 오르다가 낭떠러지로 굴러 내리는식으로 발전한다. …최고의 발전 단계인 제국주의에로.

지금 독점 자본가들과 그 앞잡이들은 말하기를 오늘의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illegible]추했고 맑스가 그 멸망을 예견한 그런 자본주의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단말인가!?

현실에 물어 보자—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결과 미국이 어떤 형편에 이르렀는가를.

오늘 미국에서는 일할래야 일할 곳이 없어 500만 명 이상이 실업을 당하여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반실업자의 수는 무려 1,500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반동적 씨. 아이. 오—에이. 에프. 엘 합동로조가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오늘 미국 전국에서 4,000만 명의 인구가 생활이 극히 곤

난한 형편에 있으며 1,7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매일 저녁을 굶은 채 잠'자리에 눕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늘 미국이 썩을 대로 썩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1960년에 《평균 매 58 분 동안에 1 건의 야간 절도 사건, 매 6 분 동안에 1 건의 강도 사건, 매 34 분에 1 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매 4 분 동안에 1 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도난 사건은 매 2 분에 2 건씩 있었다.》—이것은 《미국 련방 조사국》 국장 후버의 고백이다.

1960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미국에서 벌어진 각종의 엄중한 범죄 사건은 786만 1,300 여 건에 달하였다.

이 통계 수'자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 내부는 더욱 썩어 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제국주의 시기에는 자본주의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모순이 극도에 달한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회는 더욱 해괴망측해지고 무시무시해진다. — 독점 자본가들이 떠드는 《번영한다》는 것은 사실을 말한다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돈만 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승냥이의 법칙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야수적인 경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서로 잡아 먹으며, 큰 놈이 작은 놈들을 자꾸 잡아 먹는다. 그 결과 제국주의 시기에는 한 줌도 못 되는 대자본가들이 중요한 생산 수단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

말하자면 잘 사는 자, 《복 받은 자》는 더욱 몇 놈 안 되는 독점 자본가들이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게 된다.

오늘 미국에서는 8 개의 큰 독점 재벌이 나라의 중요한 재부를 모두 가로 타고 있다.

그 자들은 비단 산업, 철도, 운수, 은행 등만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의회, 군대와 경찰, 재판소와 감옥, 방송국과 출판물 등 모든 것을 틀어 쥐고 제멋 대로 좌지 우지하고 있다.

갈수록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

한편으로는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파쑈적 폭압으로써, 다른 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부패와 타락과 무기력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 사회는 간신히 숨이 붙어 있다.

그런만큼 우리가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게 되는 무시무시한 일들, 야수들조차 얼굴을 붉힐 그 진저리 나는 추태들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말 세기적 풍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더는 력사 상에 존재할 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길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향하고 있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이것은 죽어 가며 썩어 가는 자본주의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이다.



(다음 호에 계속)

공산주의 수양과 민청 생활

리 석구

청년 시절은 각 방면에 걸쳐 배우고 수양하는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년 시기는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품으며 그들의 세계관과 인생관, 고상한 도덕 품성의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조국의 미래를 걸머지고 나아가는 우리 혁명 위업의 계승자이다.

그런데 청년들이 자기의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며 새 사회 건설의 믿음직한 투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항상 자신을 정신 도덕적 및 육체적으로 수양하여야 한다.

혁명적 수양을 강화함으로써만 청년들은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자신을 무장하며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풍부한 지식과 품성을 소유할 수 있다.

만일 청년 시절에 수양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마치 자양분을 섭취 못 한 나무와도 같이 그의 앞길에는 생기와 전망이 없으며 온갖 사회적 폭풍우의 시련을 꿋꿋이 이겨낼 수 없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있어서 수양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혁명적 과업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수양이란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 전사로 단련하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들의 이러한 공산주의 수양은 로동과 학습 및 각 방면에 걸친 사상 단련 과정에서 진행된다.

그 중에서도 민청 조직 생활은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수양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면 청년들이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되기 위한 혁명적 수양에서 조직 생활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민청 조직 생활은 곧 청년들의 혁명적 수양의 훌륭한 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

민청 조직 생활이란 그것은 민청의 규약상 요구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민청 규약은 민청원들의 일체 활동과 생활의 기본 표준이며 거기에는 청년들의 혁명적 수양에 필요한 제 요구가 전면적으로 반영되여 있다.

민청 규약에는 민청원들이 당의 붉은 혁명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혁명적 생활 규범은 무엇인가가 똑똑히 명시되여 있다.

특히 민청원의 의무 조항에는 민청원들이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 관철하며 자기의 정치 및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며 일체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배양하며 민청 조직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의 제 요구와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준비하는 공산주의적 수양의 기본 요구가 반영되고 있다.

민청 생활이란 곧 이와 같은 규약상 요구를 민청원들의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천 활동이다.

따라서 민청 생활을 충실히 하는 전 과정은 곧 로동과 학습 및 모든 실천을 통한 혁명적 수양의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 수양은 또한 어디까지나 자신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혁명적 실천 투쟁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각적인 수양도 민청 생활을 통해서 훌륭히 수행될 수 있다.

그것은 민청 조직 자체가 청년들의 자원적이며 자각적인 조직이며 따라서 민청 생활 자체도 규약상 요구에 기초한 민청원들의 진실로 자각적이며 능동적인 혁명적 생활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가 건설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사회 질서가 오직 공동 생활 규범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자각성에 의하여 유지되는 사회이다.

공산주의 사회 생활에 적응한 이러한 자각성도 바로 민청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실천 과정에서 훌륭히 배양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청원들은 민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민청 결정과 조직적 위임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양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혁명적 실천을 떠난 수양이란 있을 수 없으며 실천이 없이 사상을 발전시킬 수 없다. 민청 조직의 결정과 위임의 수행은 곧 모든 민청원들이 당과 혁명 위업 실행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는 실천 투쟁으로 된다.

따라서 민청의 조직적 위임을 수행하는 실천 활동 과정은 청년들의 혁명적 수양의 중요한 밑천으로 되는 것이다. 실지 체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청원들은 누구나 다 민청 조직 생활에서 일정한 정치적 분공과 경제적 분공을 받고 그 수행을 통하여 매 시기 제기되는 혁명 과업 수행에 동원되고 있다. 즉 당 정책을 군중 속에 해설 침투하며 뒤떨어진 사람들을 교양하며 경제 과업 수행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담당 수행하며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과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들은 이러한 위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난관과 애로에 부닥쳐도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나가는 집단주의의 고귀한 공산주의적 품성을 배양하며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높은 책임성과 완강한 혁명적 기질을 배양하게 된다. 특히 혁명 실천 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할 수 있으며 부과된 위임을 끝까지 실행하기 위하여 항상 머리를 쓰며 자기의 온갖 혁명적 열성과 창조적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

민청원들은 또한 위임 실행 과정을 통하여 자기 지식을 더 넓힐 수 있고 문화 기술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민청 생활은 민청원들의 생활에서 발로되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의 사상 의식 발전을 부단히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민청원들의 생활과 활동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 사실과 함께 일시적인 오유와 낡은 사상 의식의 영향으로부터 오는 부족점이 발생될 수 있다. 여기서 만일 자기를 반성할 줄 모르고 자기의 결함을 볼 줄 모른다면 자체의 사상을 단련할 수 없다. 때문에 항상 자신을 반성하며 자기의 생활과 행동을 총화하여 대중으로부터 검열을 받는 것은 자체 수양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생활과 사업을 스스로 반성 총화하고 고쳐 나가는 것은 혁명 전사의 가장 귀중한 품성이다. 민청 생활은 바로 이것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

민청 규약에는 민청원들의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발로되고 있는 결함들을 제때에 시정하며 건전한 민청 생활을 위하여 비판과 자기 비판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민청 내의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 비판을 통하여 민청원들은 결함을 제때에 발견하고 그를 시정하기 위한 방도를 찾고 자신을 부단히 사상 정치적으로 단련한다.

특히 민청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민청 생활 총화는 민청원들이 자신의 사업과 생활을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 나가는 능력과 품성을 배양하는 유력한 방도이다.

민청 생활 총화에서 민청원들은 민청 규약상 의무 실행 정형을 대중적으로 검열 받게 된다.

민청 생활을 총화하는 과정에서 민청원들은 민청 규약상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자기가 한 일이 혁명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 공산주의 수양에서 아직 무엇이 부족한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보다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민청 생활에 참가하게 된다.

이것은 민청원들의 의식성과 자각성을 더욱 높이며 혁명가로서의 준비를 부단히 완성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민청 생활 총화를 통하여 민청원들의 낡은 사상 의식을 극복해 나가게 되며 항상 긴장되여 일편단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서슴 없이 바치는 공산주의적 기풍을 수립하게 된다.

평양 전기 기관차 공장 기술부 민청 단체 송 리길 동무의 경험은 이를 실증하여 주고 있다.

그에게는 민청 생활 수첩이 있다. 수첩의 첫부분에는 민청 사업에 대한 수상 동지의 교시와 민청원의 의무가 적혀 있고 그에 따르는 자신의 투쟁 목표와 일과표가 첨가되여 있다.

그는 하루 생활이 끝나면 이 수첩을 놓고 오늘 수상 동지의 교시를 어떻게 실천하였는가, 그리고 민청 규약상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혁명에 더 리익을 줄 수 있는 것을 못 한 것은 없는가, 조직과 규률에 위반되는 일은 없었는가, 있다면 왜 나타났으며 그것이 집단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가 등등으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수첩에 적는다.

이렇게 그는 자신을 정확히 검토한 기초 우에서 민청 생활 총화에 참가하여 대중 앞에서 자신의 민청 생활 정형을 검열 받는다.

그리고 민청 생활 총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생활의 교훈으로 삼고 자신의 사상 정치적 단련에 완강히 노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민청 생활 총화를 습성화하였기에 오늘 그는 훌륭한 민청원으로 되고 있다.

민청 생활이 청년들의 전면적 수양의 중요한 학교로 되는 것은 또한 청년들의 수양에 필요한 각종 다양한 교양 수단들이 민청 조직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청 총회 및 민청 학습회를 비롯한 각종 교양 체계는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단련하며 그들의 사상 정치 수준을 제고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민청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며 문제 토의에 적극 참가하는 과정에서 민청원들은 조직의 한 성원이며 정치 활동가라는 높은 긍지와 자각성과 혁명적 규률성으로 자신을 단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민청 회의에서 토의 결정되는 모든 문제들은 민청원들의 혁명적 수양을 위한 투쟁 과업이며 목표로 된다.

민청 학습회를 비롯한 민청 사상 교양의 내용에는 해당 시기 당 정책과 청년들의 사상 수양의 기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여 있다.

민청원들은 이러한 교양 수단을 통하여 당 정책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는 동시에 맑스-레닌주의 리론 수준을 부단히 높이게 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수양에서 민청 생활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크다.

모든 민청원들이 민청 생활에 성실하게 참가하는 것은 자신을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로 단련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민청원들은 민청 생활에 항상 자각적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청원들은 민청 생활을 우에서 조직해 주기만 기다리고 독촉이나 요구성에 마지 못해서 하는 일체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태도를 시정하며 민청 규약의 매 조항들은 항상 깊이 명심함으로써 민청 생활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하여 항상 생각하며 머리를 써야 한다.

이리하여 민청 회의를 비롯한 모든 조직 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창발적 의견을 제기하는 동시에 채택된 결정과 분공된 과업 실행을 위하여 완강한 노력과 온갖 창발적 열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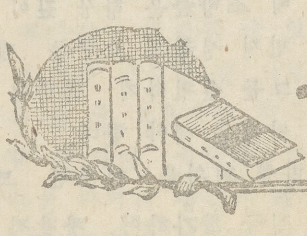
이와 함께 민청원들은 민청 규약상 의무에 비추어 자신의 민청 생활을 일상적으로 검토 총화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극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지적 충고와 비판에 대하여 허심하게 대하며 민청 조직에 더 적극적으로 의거하여 집단의 방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 4 차 당 대회가 제시한 지 덕 체 과업은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수양의 기치이며 현 시기 민청 생활의 기본 내용이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지 덕 체 과업이 민청 생활에서 가지는 의의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를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민청 생활을 통한 부단한 혁명적 수양에 기초하여 자신을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며 풍부한 과학 지식과 고상한 도덕 품성 및 건전한 체력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훌륭히 준비되여야 할 것이다.



학습에서 체계성

백 선 욱

청년들은 부단히 새 것을 배우려는 혁신적 기개와 창발성을 발휘하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한다.

누구보다 신속하게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자체 수양을 잘 하여 혁명에 더욱 충실히 이바지하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일치한 념원이며 숭고한 지향이다. 또한 이것은 과학과 기술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객관적 현실이 제기하고 있는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혁명의 무기와 수단을 튼튼히 소유하기 위한 학습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학습을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문제이다.

× ×

그러면 학습에서 체계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인류가 축적한 과학과 기술 발전의 훌륭한 성과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복잡한 과업을 단꺼번에 전부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학습에서는 반드시 일정한 체계와 순서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학습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기가 리해할 수 있는 초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

례컨대 대수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산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고등 수학의 제반 원리들과 명제들, 공식들을 인식하려면 반드시 초등 수학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학습에서 체계성이란 학습 내용의 명확한 론리적 배렬을 의미하며 순차성이란 학습의 명확한 순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식 소유 정도와 인식 능력에 맞게 단순하고 저급한 문제로부터 점차 복잡하고 고급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려면 그 내부적 론리에 맞게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단순문을 알지 못하면 복합문을 알 수 없으며 간단한 기계적 운동과 열 운동을 알지 못하면 복잡한 전자 운동을 리해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우선 자기의 능력과 조건을 옳게 타산하고 한 문제씩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흔히 일부 청년들은 학습에서 체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관적 욕망이나 혹은 조급성에 사로잡혀 이것저것 앞뒤의 련계도 없이 되는 대로 학습하는 경향들이 있다. 또는 자기가 아는 것이 너무 적다고 하여 수치로만 생각하고 모르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할 대신에 필요한 학습 계단을 뛰여 넘는 사실도 찾아 볼 수 있다.

청년들은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만 생각하거나 조금 안다고 하여 자고자대할 것이 아니라 허심하게 쉬운 문제로부터 하나하나 배워 자기의 식견을 부단히 넓혀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가장 초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배워 나아가면 나중에는 높은 리론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학습에서 체계성을 보장하지 않을 때에는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않으면 더 심오한 내용을 파고 들어 갈 수 없으며 나중에는 막히고 만다.

또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배우는 문제들을 호상 련관시켜 통일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단편적 지식밖에 얻을 수 없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형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 훌륭히 이바지할 수 없는 것이다.

례컨대 물리, 수학, 화학, 생물학 등 일반 자연 과학과 기초 기술 과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않는다면 결코 공업과 농업의 각면 전문 부문의 과학 기술도 심오히 파고 들어 정통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새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에서 체계성을 보장하지 않을 때에는 암기식독경식 학습 방법을 퇴치할 수 없다.

어떤 문제를 학습하는 경우에 그 본질을 깊이 리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암기하게 되는 것은 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배워야 할 문제들이 많고 복잡해도 초보적인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꾸준히 배워 나가면 과학과 기술의 높은 요새를 점령할 수 있다.

× ×

그러면 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은 단순하고 쉬운 문제로부터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명하고 체득하는 방향으로 부단히 전진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습에서 체계성과 순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식 정도와 인식 능력을 옳게 타산하여 뚜렷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서 계단별로 순차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하고 저급한 것으로부터 복잡하고 고급한 것에로의 점차적인 인식—이것은 인간 인식 발전의 과학적인 로정이며 학습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본 방법이다.

때문에 시간이 바쁘다고 하여 필요한 학습 계단을 뛰여 넘는다면 오히려 제기되는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리해할 수 없게 된다.

과학과 문화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모든 사람들은 학습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기어이 집행하는 생활 기풍을 수립하였다.

우리 나라 실학 사상의 집성자인 정

다산 선생은 학문에는 끝이 없으나 체계적으로 배워 나가면 훌륭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젊었을 적에 새해를 맞을 때마다 반드시 일 년 동안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글을 뽑아 베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대로 실천하였다.》

청년들은 자기의 원대한 포부와 숭고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습 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완강하게 실천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목적 지향성이 없이 이것 저것 잡히는 대로 책을 읽고 학습하는 자연 발생성과 무질서한 현상도 극복할 수 있다.

둘째로 학습에서 체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새로 배우는 문제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밀접히 결부시켜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가 학습하는 모든 원리나 명제들, 공식들은 유기적으로 련관되여 있는 일정한 지식의 체계 내에 속해 있는 것이다. 어떤 문제도 고립되여 있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학습하든지간에 반드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들과 밀접히 련관시켜야 리해를 깊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의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다.

례를 들어 물리, 화학, 력사, 지리 등의 학습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유물 변증법에서 배운 리론을 옳게 결부시켜야 하며 또한 조선 로동당 력사를 학습하려고 해도 우리 나라의 력사와 당 정책 및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셋째로 배우려는 문제의 전반적 내용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 내여 그것을 옳게 파악하는 것이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학습을 함에 있어서 중심 문제를 옳게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힘을 경주하지 않거나 날림식으로 《수박 겉핥기》, 《주령이 담 넘어 가듯이》 책을 읽는다면 시간을 많이 소비하여 책을 읽고 학습하여도 남는 것이 별로 없으며 필요한 지식을 훌륭히 습득할 수 없다.

중심 문제를 정확히 세우고 학습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자기가 학습하려는 전반적 내용을 통일적으로 리해할 수 있는 열쇠로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운 지식을 일반화하며 체계화하여야 한다.

우리가 배우는 과학 기술은 일정한 학과목으로 분류되여 있으며 매 과학은 또 부문과 계단별로 구분되여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임의의 과학 기술 지식을 통일적으로 리해하기 전에 개별적인 문제들로부터 학습하여 전체 부문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

때문에 자체 학습에서 일단 한 부문 또는 한 계단을 끝내면 총체적으로 일반화하여 통일적으로 리해한 다음 다른 령역에 대한 학습으로 이행함으로써 체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청년들은 앙양된 학습 열의와 독서 기풍을 체계적인 학습 방법과 옳게 결합시킴으로써만 최단 기간 내에 모두가 현대적인 과학 기술로 튼튼히 무장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되며 우리의 혁명 위업에 더 잘 이바지할 수 있다.



영웅적 조선 인민의 기개를 떨치고

한 필 화

감격의 선풍

나는 얼마 전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진행된 1963 년도 남녀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영예를 지녔다. 그 때의 커다란 감격을 나는 일생 두고 잊지 못 할 것이다.

우리가 탄 비행기가 도꾜 하네다 비행장에 내렸을 때였다. 광장을 뒤흔들듯 터져 오르는 만세 소리, 환호소리, 악대의 요란한 환영곡, 수 많은 재일 동포들의 물'결—그야말로 온 비행장이 떠나갈 듯하였다.

색동 저고리로 곱게 단장한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묶음을 안고 나와 《언니!》《오빠!》하고 우리의 가슴에 안기여 목을 힘 있게 그러 안는다. 그들의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른다.

우리들은 수백 명의 재일 동포들에게 에워싸이였다. 60이 가까운 한 할머니가 손을 내밀며 말한다.

《…어디 당신들의 손을 좀 잡아 봅세다. 20여 년을 일본에서 살아 오건만 조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기는 처음이요. 그저 조국에 가 있는 것만 같수다.》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감격의 눈물! 일찌기 일제 식민지 노예의 설음을 안고 정든 고향 산천과 부모 처자를 생리별하고 눈물의 현해탄을 건너 한 많은 이국살이에 시달리던 그들…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지금 멀리 조국에서 온 우리들을 붙안고 이렇게 흐느껴 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의 가슴에는 감격과 기쁨만이 있은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서글픈 생각도 없지 않았으니 그것은 남조선 선수들이 이 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번 대회에서 남조선 체육인들과 상봉하며 그들과 같이 경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얼마나 기대했던 것인가!

우리의 간절한 념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조선 선수들은 이 번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은반 우로 달릴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번영하는 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하꼬네에서 진행된 국제 속도 빙상 경기 대회가 개막되는 날 새벽 우리는 미국 선수와 함께 달리게 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국 사람과 대전한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심장은 흥분으로 고동쳤고 긴장되였다.

말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 제국주의자들, 미국사람들과 대전하게 되였으니 우리 어찌 흥분하지 않으며 긴장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 사람을 지워야 한다. 꺾어야 한다.

항일 투사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 받았고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제를 때려 부신 우리가 빙상 경기에서 미국 선수와 맞서 이길 수 없겠는가! 몇 해 전에 블란서에서 열렸던 국제

배구 경기에서도 우리의 녀자 선수들은 강적이라는 미국 팀을 타승하지 않았던가…

벌써 고 경희 동무는 미국 선수와 함께 출발점에 나섰다. 우리는 쌍방망이치는 가슴을 안고 발을 동동 굴렀다.

이윽고 출발총 소리가 울렸다. 긴장, 초조…미국 선수와 가지런히 나가던 고 경희 동무는 어느덧 한 발 한 발 앞서기 시작하였다. 순간 경기장은 일시에 폭풍 같은 환성으로 들끓었다.

《천리마로 달려라! 조선 선수 이겨라!》

모든 관중들이 우리 조선 선수들을 응원하였다. 드디여 고 경희 동무는 미국 선수를 12 메터나 뒤떨구어 놓고 테프를 끊었다.

우리는 정신 없이 달려 나가 고 경희 동무를 그러안았다. 경기장 안에 있던 일본 역원들, 내외 기자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우리를 둘러 싸고 손을 내밀며 영웅적으로 싸워 이겼다고 축하해 주었다.

관람석에 앉아 있던 재일 동포들은 우리의 성과에 감격하여 눈물까지 흘리면서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원수 만세!》를 소리높이 웨쳤다.

허나 이것은 아직도 첫 성과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튿날 남자 500 메터 경기에서 다시 미국 선수와 달리게 되였다. 이에 출전한 김 진국 동무는 미국 선수보다 0.5 초나 앞서 테프를 끊고 결승점에 들어 섰다.

재일 조선 청년들이 달려 나가 김 진국 선수를 공중으로 추켜 올리며 만세를 웨쳤다. 이 순간의 감격을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뒤따라 들어 선 미국 선수는 악을 쓰다 못해 맥이 풀렸던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얼음판에 나자빠졌다. 그는 이 날 《조선 사람이 세다. 미국이 조선 사람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면서 떨신 머리를 저었다 한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미국 선수들을 타승하였다.

× ×

남녀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 첫날(21일) 녀자 500 메터 경기에서 나는 쏘련 선수인가 워로니나와 함께 달리게 되였다.

워로니나 선수로 말하면 녀자 500 메터 경기 뿐만 아니라 1,500 메터와 3,000 메터에서도 이미 세계 기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작년도 선수권 대회를 포함하여 과거 두 번이나 녀자 계세 선수권을 장악한 유명한 선수이다.

긴장된 마음으로 출발점에 나서자 나는 워로니나 선수와 친선적인 악수를 나누었다.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 올랐다.

수천 명의 관람자들이 가슴을 들먹이며 주시하는 가운데 우리는 달리기 시작하였다. 열광적인 박수와 환성은 장내를 뒤흔들었다.

드디여 나와 워로니나 선수는 동일한 기록으로써 거이 동시에 결승점에 들어 섰다. 이윽고 대회 기록계로부터 내가 선착하였다는 것을 장내에 방송하였다.

다시 장내에는 박수와 환성이 터져 올랐다.

《영웅 조선의 딸 한 필화!》

《천리마 나라의 딸 한 필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성과를 찬양하며 축복하였다.

나의 눈앞에는 언뜻 수상 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이 떠 올랐다.

(수상 동지! 감사합니다. 당의 품에서 자라난 저는 오늘 수상 동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싸웠을 따름입니다.)

나는 속으로 몇 번이나 이렇게 외웠다.

대회 실황을 중계하는 일본의 텔레비죤 카메라와 뉴스 카메라, 방송 등이 우리에게 집중되였다. 내외 기자들이 우리에게 달려 와서 《조선 선수들의 실력은 경의적이다.》 《금번 대회에서의 조선 선수들의 대활약이 주목된다.》고 하면서 이구 동성으로 경탄을 표시하는 것이였다.

날로 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조국의 영예를 지니고 금번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조선 인민과 청년의 영웅적 기개를 온 세계에 유감 없이 떨쳤다.

나시없는 기쁨과 감격에 휩싸인 우리 동포들

세계 선수권 대회 개최지인 나가노겐 가루이자와 빙상 경기장은 세계 각국에서 자기 나라 선수를 응원하며 격려해 주기 위하여 혹은 그 국제 경기를 한 번이라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싶다는 념원을 안고 모여든 관객들로 흥성거렸다. 한 바퀴 400 메터나 되는 하얀 얼음판을 빽 둘러 싸여 내려다 보는 관중석은 련일 하나의 빈자리도 없었다.

특히 우리 동포들은 조국이 해방되여 18 년만에 처음으로 공화국 빙상 대표단을 만나게 된 감격과 벌써 이틀 간에 걸친 녀자 선수들의 경기에서 한 필화 선수가 세계 제1 위의 기록을 가진 워로니나 보다 앞섬으로써 세계 인민들을 경탄케 한 사실과 조선 민족의 영웅적 기개를 유감 없이 보여 준데 대하여 무한한 자랑과 긍지감을 가졌으며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느끼였다.

한 필화, 김 송순, 리 성률, 박 성운 선수가 우리 앞을 지날 때마다 벅차오르는 감격과 흥분을 참지 못해 좌석에서 일어 나 선수들의 건투를 빌며 보내는 진심으로 되는 찬양의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가 오래 계속된다.

감격한 나머지 고인 눈물을 한 손으로 남몰래 씻는 할머니, 량 손을 흔들며 《잘 했다. 잘 했어!》를 련발하며 기뻐하는 어르신, 자기가 마치 기록이라도 세운 것처럼 옆에 앉은 자기 동무에게부터 우선 멋을 부리는 소년, 남녀 로소가 경기장에서 간직한 기쁨이란 실로 한량 없다.

지난 날에 억눌려 살아 온 우리들이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 키워 주신 조국의 빙상 대표단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들 앞에서, 세계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용맹을 남김 없이 떨쳤다.

동포들은 용솟음치는 감격에 휩싸이면서 이러한 행복과 기쁨, 영예와 자부심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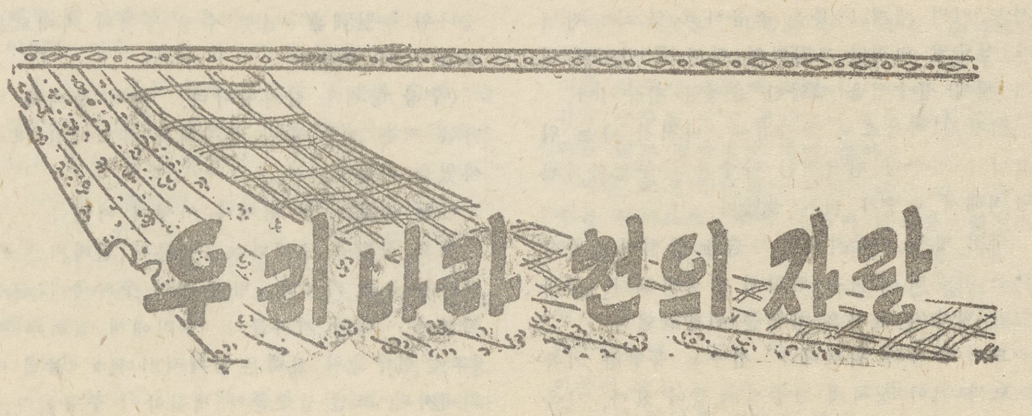
동경 에도가와에서 온 한 동포는 첫 시작으로부터 2 일 간은 집에서 텔레비죤을 보다가 더는 참지 못 해 경기장으로 달려 왔다고 하면서 말한다.

《…우리 선수가 제비처럼 달리는 게 아주 신이 나던데요. 그걸 보느라고 요 며칠 간은 당초에 일'손이 잡히지 않습데다. 이왕이면 나가서 우리 선수를 한번 내 눈으로 보자고 해서 온거요.

장합니다. 정말 우리 선수는 세계 어느 나라 선수에 못지 않게 장합니다.》

《우리 나라는 해방된지 그리 오래지 않는데 미국 놈들과의 힘에 겨운 전쟁을 이겨내고 전후에 파괴된 조국을 복구하며 오늘처럼 아름답고 웅장한 조국을 건설하였는데 어느 새 우리 나라 빙상 체육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놓았는가,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한 상공인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과연 조선 민족은 굉장한 민족입니다. 이것도 모두 조국이 있기 때문이며 영명하신 우리 수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라고 말하였다.

(《조선 청년》 신문에서)



우리 나라 천의 자랑

김 연 식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금수 강산과 맑은 조선의 하늘이며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의 기상을 문양으로 아로 새겨 가로 세로 엮어 짠 한 필의 천에서도 우리는 커다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그 우수한 기교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 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많은 화려한 천(옷감)들을 짰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천의 이름만 든다 해도 그 수가 굉장하다.

우선 《흥부전》의 한 대목에 나오는 실례만 들더라도 길주, 명천 가는 베, 회령, 종성 고운 베, 춘포 (강원도), 륙진포, (함경북도), 바리포 (함경도 베), 사승포, 증산포(평안도), 강진 해남 (전라도), 극세목, 고양 (경기도), 꽃밭들리 생원의 맏딸애가 보름만에 마쳐내던 세목, 의성북, 송도 야다리목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비단으로는 일광단, 월광단, 송조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면 이러한 방직 기술이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원시적이나마 실을 뽑고 천을 짰으며 그물을 떴다.

그것은 우선 석기 시대에 실을 뽑는데 쓰던 돌가락추(방추차—)라든가 천을 짜고 그물을 뜨는데 쓰던 석추(石錘)라든가 그리고 직물의 조직 무늬를 적는 포문(布紋) 토기(土器)의 파편들이 우리 나라 각지에서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서도 벌써 원시 시대에 우리 선조들의 방직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지금부터 약 3000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벌써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누에를 쳐서 명주천을 짰다.

고전 문헌들에 의하면 《마한전》에는 마한 사람들이 누에를 칠 줄 알고 면포(綿布)(오늘의 면직물과 같은 것은 아니다.) 즉 당시의 명주천(툿명주에 해당함)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여 있고 《변한전》에도 류사한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 선조들은 원시 시대부터 삼으로 실을 뽑고 그것으로 그물을 뜨거나 천을 짰으며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길렀으며 명주실을 뽑아 천을 짰음을 잘 알 수 있다.

삼국 시대에 들어 서면서 우리 나라의 방직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였다. 우선 고구려에서는 전문적으로 비단천을 짜고 옷을 짓기만 하는 기술자들이 따로 있어서 그 기술이 놀랄만 했고 질 좋고 빛 좋은 천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이 때에 벌써 다섯 가지 색의 비단과 회견(繪絹)이라 하여 병풍 같은데 사용되는 날실이 가늘고 균일하고 세밀 정교한 견직물도 생산했다. 그렇게 화려한 다섯 가지 색의 비단은 국왕만이 입을 수 있었고 일반 인민들은 입지도 못 하였다.

백제에서는 천 짜는 전문 제조소를 두어 릉(綾—끈 실로써 사문 조직으로 짠 견직물 즉 견릉직) 금(錦—다섯 가지 색으로 무늬를 놓아 짠비단) 주(紬—명주) 라(羅—꼬임 조직으로 짠성근 견직물)등 여러가지 견직물을 짰다.

특히 신라 시대의 직조 기술은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것이였다.

천의 질을 규정하는 지표로써는 베틀(織機) 부분품 중의 하나인 바디'살의 수가 중요하였다. 바디'살이 40일 때에 1 새(布)라고 불렀는데 오늘까지도 농촌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다. 최근까지 농촌에서 베틀로 짜는 명주의 새 수는 18 새～22 새였다.

이리하여 새의 수가 많을수록 날실의 수가 많으며 따라서 천이 섬세하고 고운 것으로 된다.

여기서 신라 시대에 쓰던 천의 새'수를 보면 견직물 (명주)에서는 8～22 새, 저포 (苧布—모시)에서는 6～10 새, 기타 마포(麻布)에서는 4～10 새였다.

또한 기록에서 보면 672년에는 30～40 새의 천까지도 짰다 하니 그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렇게 훌륭한 신라의 각종 천들은 그 당시에 벌써 외국에까지 이름이 났고 또한 수출품으로 되여 있었다.

그 당시의 직조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이야기로도 잘 알 수 있다.

오늘 문직(紋織)용 장치로써 유명한 《자카드》라는 장치는 불란서의 자카드라는 사람이 1752년에 발명한 것인데 여기서 리용하고 있는 원리가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상 벌써 5 세기 경부터 응용되고 있었다. 그 실례로써 현재 평양 국립 력사 박물관에 비치되여 있는 토성리 부근에서 발견한 목관(木棺)—지금부터 1900년 전의 것—안에는 비단 허리띠가 있는데 이것은 릉직을 바탕으로 한 문직으로 되여 있다. 이러한것은 바로 우에서 말한 《자카드》 장치와 비슷한 것에 의하여서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고려 시대에 들어 와서 잡직서(雜織署)혹은 도염서(都染署) 등의 방직과 염색을 전문으로 하는 관청 부서를 설치하고 각 도에서 우수한 기술자들을 불러 올려다가 옷감을 짜게 했는데 매우 훌륭한 옷감이 생산되였다.

이 시대에 새로이 생긴 직물로써는 엷은 모시와 황마포(黃麻布) 그리고 면직물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면직물에 대하여 말한다면 문익점 (文益漸)이라는 이가 고려 말기에 중국에 가서 목화씨를 가지고 돌아 와서 전파시킨 때로부터 급속히 발전되였다.

당시 목화는 중국 원 나라에 있었는데 그 씨를 타국에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하여 외국 사신들이 왕래할 때에는 감시와 조사가 심하여 사신의 소지품까지 뒤져서 목화씨가 있으면 모조리 압수하였다 한다.

그러므로 고려 사신으로서 중국에 갔던 문익점은 겨우 3～4 개의 목화씨를 붓 무껑 속에 넣어 가지고 간신히 귀국하였다.

그런데 이 때 우리 나라에서는 목화를 재배한 경험이 없으며 또한 기후 조건도 맞지 않아 목화씨의 싹이 나게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였다. 하물며 솜을 타서 실을 뽑는 문제는 더 어려웠다. 그것은 여러 가지 도구와 기계들을 새로 창안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문익점은 여러 해 동안 노력한 결과 목화를 우리 나라에서 재배하는 문제와 방적하는 것을 끝내 해결하였다.

우선 방적하는 데는 조면기와 방적기를 발명하여야 하였다. 조면기 즉 솜에서 씨를 빼내는 기계는 우리들이 지금도 물레와 함께 농촌에서 보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씨아 (取子車)라고 불렀다. 다음으로 타면기 즉 솜을 타는 장치로써는 활이 있었다. 또한 솜에서 실을 뽑는 기계 다시 말하면 물레가 창안되였고 마지막으로 현재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베틀로 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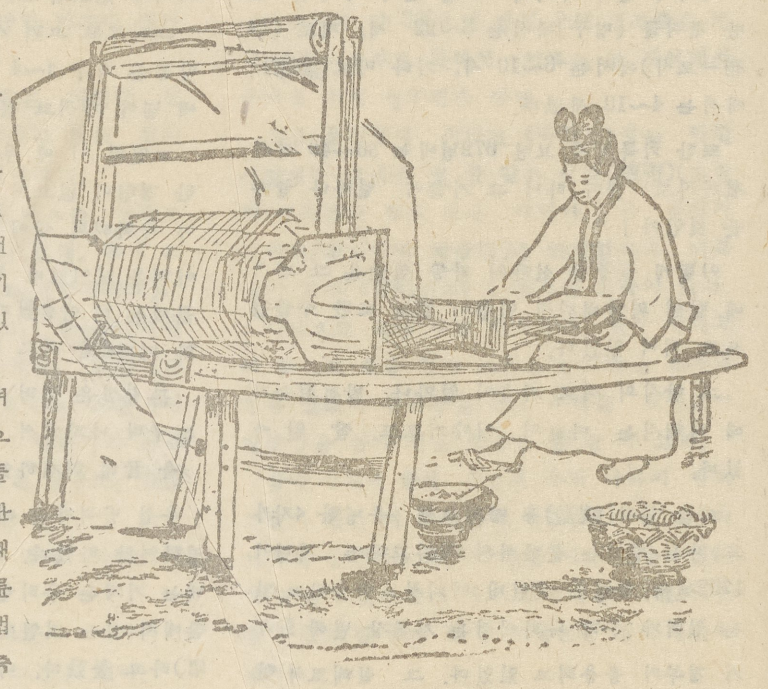
이리하여 목화씨의 파종으로부터 무명천의 제직에 이르기까지의 농촌 가내 수공업이 문익점과 그 고향 인민들의 꾸준한 집체적 노력에 의하여 완성되였으며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때로부터 우리 나라 농촌의 가가 호호에는 씨아와 베틀이 장만되고 무명이 인민들의 대중적 피복 재료로 등장하게 되였다.

리조 시대에는 방직물들이 직접 화폐의 역할을 하였으니만큼 이것이 착취의 기본 대상의 하나로 되였던 관계로 방직 기술이 대체로 침체 상태였으나 독특하게 발전한 종류들도 적지 않았다.

리조 시대에는 우에서 언급한 《흥부전》에서 나온 직물 외에 또한 유명한 천으로써 송도목, 진주목, 라주목, 북포(일명 륙진포), 한산저(한산 모시), 영흥 명주, 덕천 항라들이 있었으며 공예품으로도 평양 누비, 안주 수놓이, 라주 새끌나이 등이 있었다.

끝으로 우리 나라에서 실과 천에 물을 들이던 과정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우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삼국 시대에도 벌써 다섯 가지 색의 비단천을 짠 것으로 미루어 염색 기술의 발달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로 채화 (彩繪)즉 여러 가지 색의 물'감들을 붓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었고 둘째로는 설문 (揩文) 즉 목판에다 날염하는 방법과 세째로는 갈힐(纈纈) 즉 초로 륜곽을 그려서 염색하는 방법이 있었다. 다음에는 협힐 즉 두 개의 무늬 목판 사이에 압착하면서 침염(浸染)시키는 방법으로 발전하였으며 교힐(絞纈) 즉 한 묶음씩 묶어서 침염하면서 점 무늬를 내는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우수한 염색 기술로 만든 다섯 가지 색의 금 (錦)은 주로 통치 계급들이 향유하는 사치품으로 되였고 외국에 수출하는 상품으로 되였다.

고려 시대나 리조 시대에 와서는 염색 기술은 한층 더 발전하여 다색 다양한 천들을 계속 많이 만들었고 외국에까지 수출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선조들의 방직 염색 기술과 옷 만드는 데 대하여서도 얼마나 예술적인 고려와 기술적인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었는가를 말하여 주는 동시에 오늘의 방직기들 역시 슬기로운 유산을 계승 발전시킨 결과라는 것을 여실히 증시하고 있다.

자유의 봄을 위하여

—4.19의 피의 교훈을 잊지 말자—

장 티 화



봄—

이 땅에 봄'빛이 깃들고 있다. 동결의 대지우에 잔설과 싸우며 위대한 자연의 봄이 찾아들고 있다.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나라,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마음 속에는 벌써 봄이 무르녹고 있다.

해빙기를 맞은 대동강 푸른 물은 쏴—쏴— 소리치며 청류벽을 감돌아 흐르고 강변에 휘늘어진 수양버들은 연록색으로 아름답게 몸단장을 했다.

아지랑이 춤추는 협동의 전야에는 뜨락또르며 자동차들이 엔징소리도 경쾌하게 농사'일이 한창이다.

이 땅에 봄은 정녕 환희와 희망을 싣고 찾아 왔다.

× ×

자연의 봄은 남녘 땅에도 어김 없이 찾아 들어 창경원의 벚꽃은 망울을 지었고 산에 들에 새 싹이 돋았다.

허나 남녘땅 겨레들의 마음에는 봄'빛이 찾아 들지 못했으니 다만 풀'잎 돋고 꽃이 피였다고 어찌 봄이라 하랴—

봄 아닌 봄, 봄을 봄이라 부를 수 없는 봄이 다시 남녘땅에 찾아 온 것이다.

하나의 지맥으로 잇닿은 한 강토 우에서 남북은 너무나도 판이한 두 봄을 맞는다.

자유와 민주주의,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진정한 자유의 새 봄을 위하여, 남녘땅 겨레들이 피흘려 싸운 그 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삼년, 항쟁의 거리, 투쟁의 광장에서 피흘린 4.19 용사들의 무덤 우에 어언 세 해째 새 잔디가 푸르렀다.

아, 잊지도 새로운 1960년 4월 19일—

숨 막히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리승만 파쑈 독재의 중하에 짓눌려 쌓이고 맺혔던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원한과 울분은 드디여 폭발되였다.

서울과 부산에서, 대구와 마산에서, 온 남녘땅에서 4월의 용사들은 투쟁에 일떠섰다.

서울의 청년 학생들을 선두로 한 격노한 시위 대렬은 노도와 같이 국회 의사당으로, 경무대로 육박해 갔다.

사나운 포신을 휘두르며 달려 드는 미국제 땅크를 향해 가슴을 풀어 제끼고 《쏠테면 쏘라!》고 웨친 소년, 원쑤들의 총탄에 쓰러지면서도 4월의 사자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절규했고 미제와 리 승만을 타도하라 부르짖

었다.

총탄도, 최루탄도 그리고 죽음의 위협도 결코 그들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워싱톤의 상전들이 《아세아의 반공 보루》라고 호언 장담하던 리 승만의 파쑈 독재 정권은 마침내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4.19의 영웅적 항쟁은 실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 력사의 한 페지를 찬연히 수 놓았고 남조선 청년 학도들의 애국심과 용감성을 과시했다.

여기 서울의 한 소녀가 4.19 때에 쓴 감동적인 시 한 구절이 있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 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손'가방…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조선 일보》 3.28일 부)

4.19, 영웅적 남녘땅 형제들이 새 생활, 새 정치, 새 제도를 절규하며 피도, 청춘도, 생명도 바쳐 싸운 때로부터 3 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오늘 4.19 용사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자유의 새 봄이 공화국 남반부에는 아직도 깃들지 못 하고 있다. 그들이 흘린 피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모욕 당했으며 여지 없이 모독 당하고 있다.

보라! 교활한 미제는 저들이 《민주주의의 진렬장》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사를 퍼붓던 리 승만 역도가 4.19의 폭풍에 꺼꾸러지자 장 면을 괴뢰 정권에 들여 앉혔다. 그리고는 《장면》 정권이야말로 《대의제 민주 정치의 고무적 모범》이라고 극구 찬양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 우롱했다.

그러나 장 면 통치 시기에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얻은 것은 또 무엇이였던가? 아무 것도 없었다.

남반부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더는 속지 않았다.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가 계속되는 한 그 어떤 자가 괴뢰 정권에 들어 앉는다 하더라도 사태가 결코 달라질 수 없다는 엄연한 진리를 생활은 똑똑히 증시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였다. 《양키 물러 가라!》, 《통일만이 살'길이다》라는 웨침은 온 남녘땅을 뒤덮었고 청년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도 드높이 자주적 조국 통일과 남북 교류를 위하여 단호히 일떠섰다. 우리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이에 즉시 화답하였으며 열화 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였다.

허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박 정희 일당을 사촉하여 전무후무한 파쑈 테로 통치를 수립함으로써 남북이 서로 손을 잡는 것을 기어코 방해하고 말았다.

미제의 직접적인 조종 밑에 감행된 박 정희 일당의 파쑈 테로 통치는 남조선을 더욱더 죽음의 땅 인간 생지옥으로 몰아 넣었다.

미국 양키들은 파렴치하게도 박 정희 일당이 남조선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도대체 어디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단 말인가? 오늘 남조선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편린마저 찾아 볼 길 없는 중세기적 암흑 천지로 화하였다.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부르짖던 4월

용사들의 희망은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으며 유린 말살되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박 정희 일당의 학정은 오늘 남조선 인민들에게 류례 없는 고통과 불행만을 들씌우고 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은 이미 그 극한점에 다닫고 있다.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연기 멎은 공장 굴뚝은 다만 페허의 상징으로 솟아 있고 농토는 쑥밭이 되고 말았다.

작년도 알곡 생산은 전해보다 400만 석이 부족하여 금년도 남조선의 쌀 부족량은 무려 1천만 석, 그 전례를 찾아 보기 드문 심각한 쌀 기근이 오늘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지 않는가!

락동강반의 다 쓰러져 가는 농가의 쌀독으로부터 서울의 쌀 가게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이 쓸었다. 풀뿌리, 나무껍질을 찾는 굶주린 아낙네들이 산야를 뒤덮었다.

천정부지로 뛰여 오를 물가고는 남녘땅 겨레들의 생활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증유의 생활고가 빚어내는 갖가지 목불인견의 참극이 꼬리를 맞물고 있다. 얼마전 서울의 한 녀인은 사랑하는 두 자식을 량팔에 낀 채 남조선사회를 저주하며 한강 물'결에 몸을 던졌다. 날마다 들려 오는 일가족 집단 자살 사건, 기아 사건들은 뭇사람들의 애 간장을 에이고 있지 않는가!

봄의 향취에 희망과 포부로 가슴 부풀어 올라야 할 남녘땅의 청년 학생들이 조들리는 생활난과 성화 같은 《등록금》에 목을 졸리고 있다.

4.19 때 거리를 피로 적시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싸운 것이 과연 오늘의 이런 사태를 보기 위함이였던가! 아니다. 4월의 열매는 미제와 박 정희 일당에 의해 횡취 당하였다.

4월의 넋은 분노로 하여 온 몸을 떨고 있다. 4.19의 높은 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다.

《4월 봉기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다.》(김 일성)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르고 또 흘러 마침내 신생의 봄을 맞아 지류가 되여 콸콸 소용돌이치며 대하로 흘러 가듯이 4.19의 정신은 오늘의 온 남녘땅 겨레들의 심장마다에 력력히 살아 있으며 새로운 화염을 내뿜을 분화구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 신문까지도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4.19 항쟁으로써 리 승만 정권을 타도한 자신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군사 정권에 억눌려 온 그들의 욕구와 불만이 일정한 한계에 이른 것만큼 이것이 폭발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쓰고 있는 것을 어찌 우연타 하겠는가? 지금 남조선은 일촉 즉발의 국면에 놓여 있다.

미제와 박 정희 일당에 대한 남조선 각계 각층 인민들의 증오와 반항은 날을 따라 고조되고 있으며 군대 내에서도 동요와 불만이 극심해지고 있다.

박 정희 군사 파쑈 《정권》은 멸망의 위기에 봉착했고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는 밑뿌리 채 뒤흔들리고 있다.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민정 이양》의 간판 밑에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려던 가면마저 벗어 던지고 다시금 군사 파쑈 테로 통치를 무한정 연장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러나 력사의 교훈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이 계속되는 한 군사 파쑈 테로 통치를 연장하거나 윤 승만이나 허 승만이가 정권에 들어 앉는다 하더라도 남조선에 조성된 오늘의 난국을 결코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여!

4.19의 정신을 이어 반미 구국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라! 온 남녘땅을 항쟁의 도가니

로 화하게 하라!

4.19의 피의 교훈을 잊지 말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모든 인민들과 청년들이 힘을 합쳐 일어 난다면 어떠한 파쑈의 아성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4.19의 력사적 교훈은 말하여 주고 있다. 남조선의 로동 청년, 농민 청년들을 비롯한 학생 청년, 인테리 청년 등 모든 애국적 청년들은 모두다 일어 나 끝까지 더욱 견결하게 반미 구국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주저와 동요는 실패를 낳는다. 투쟁을 멈추지 말고 더욱 용감히 일어 나 싸워야 한다.

4.19의 피의 교훈은 광범한 근로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당이 없이는 인민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런 당이 없었기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흘린 고귀한 피의 대'가는 횡취 당하였고 군사 파쑈 도당의 권력 탈취를 반대하여 더욱 성과적으로 싸우지 못한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이 쓰라린 피의 교훈을 잊지 말고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인 당의 조직과 그의 합법적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조국 강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남조선의 파국을 수습하며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애국적 력량이 한 덩어리로 뭉치고 3천만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4.19의 경험은 단결된 인민들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가를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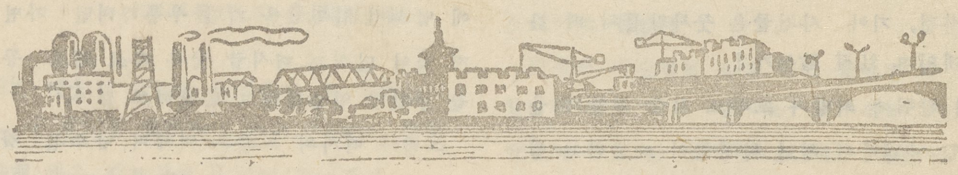
단결은 힘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이여! 일치 단결하여 4월의 광장, 항쟁의 네거리에 용감히 떨쳐 나서라!

4.19의 피를 모독하고 4.19의 열매를 가로챈 철천지 원쑤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한 놈도 남김 없이 몰아 내며 희세의 매국노 박정희 일당을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하라!

그리하여 외세 의존의 망국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인민들 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라!

진정한 자유의 새 봄을 위하여, 4.19의 애국 정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하라! 오직 일어 나 싸우는 길만이 승리를 가져 오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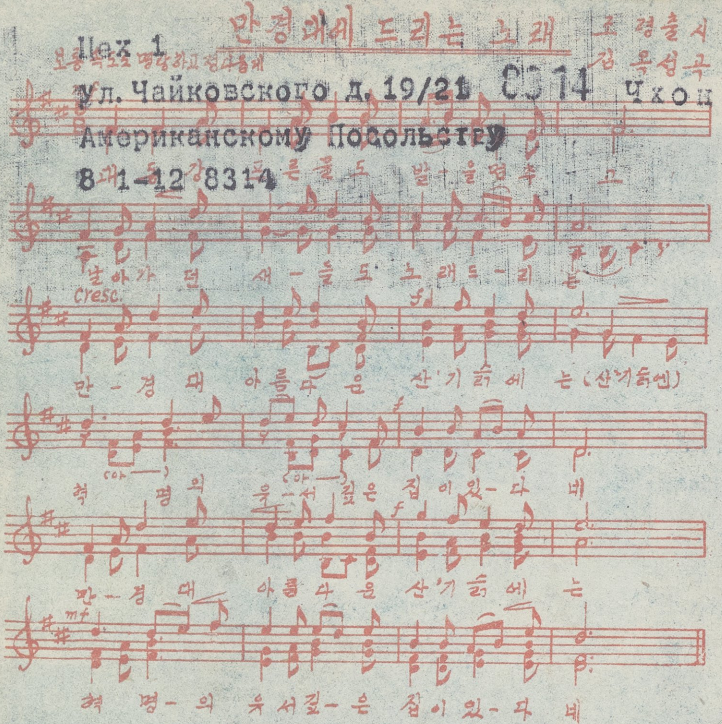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전화 (38—58, 83—85)

1963년 4월 15일 인쇄 1963년 4월 20일 발행

7—330209 (값 35 전)



2. 대대로 물려 받은 애국의 뜻을
혁명의 붉은 피로 이어 싸우신
김 일성 원수님의 요람의 고향 (요-람-)
그이의 사랑속에 새 봄이 왔네
김 일성 원수님의 요람의 고향
그이의 사랑속에 새 봄이 왔네

3. 항일의 십오성상 눈 바람 속에
어느한때 이 고장을 잊으셨으랴
나라의 새봄찾아 싸우신 보람 (싸우신)
오늘은 이땅우에 꽃이 피였네
나라의 새봄찾아 싸우신 보람
오늘은 이땅우에 꽃이 피였네



만경대